

고양고양이의 새얼굴을 찾아주세요!

고양고양이 캐릭터 리뉴얼 공모전



접수기간 : 2021. 8. 9.(월) ~ 8. 20.(금)(12일간)

공모자격 및 주제

누구나 참가가능 / 1인(팀) 1작품 응모
주 제: 고양시의 정체성·상징성을 담은 고양고양이
제작방향: 기존 고양고양이 캐릭터에 고양시와
관련된 스토리텔링을 담고, 이를 최신
트렌드에 맞게 변형·리뉴얼한 디자인
또는 기존 캐릭터와 다른, 새로운 컨셉
스토리가 있는 고양고양이 디자인

제출서류

제출서류: 출품신청서(캐릭터 설명 포함),
캐릭터 디자인 6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1부
제출형식: 캐릭터 디자인(대표시안(앞,뒤,옆) 3개)
(움짤·움짤 3개) 총 6개 이미지 파일
jpg/jpeg/png로 제출
※ 수상작은 추후 원본파일(ai 등) 제출

접수방법

접 수: 이메일 jeemin0927@korea.kr로 제출
파일명: '고양고양이 캐릭터리뉴얼 공모전 참가자 이름'
문 의: 고양시청 언론홍보담당관 ☎031-8075-2107

일정 및 시상내역

공고기간: 2021. 6. 21.(월) ~ 8. 20.(금)
결과발표: 2021. 9. 8.(수) 예정 * 수상자 개별통보
시 상 식: 2021. 9월 중
시상내역: 총 10명(팀), 500만원 시상

구분	시상자수	시상금
대상	1명(팀)	200만원
최우수상	1명(팀)	100만원
우수상	3명(팀)	50만원
장려상	5명(팀)	10만원

* 상금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수상자 본인 부담, 세금 공제 후 지급

고양in 행복도시 고양소식

GOYANG
CITY
MAGAZINE

2021
AUGUST

08
VOL.342



CONTENTS

04 고양 돋보기
28청춘창업소

06 시정 ZOOM IN
한강하구의 생태·역사·평화 이야기

08 시정칼럼
고양시 주민자치회에 거는 기대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고양시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릉천 징검다리

공릉천은 덕양구 고양동, 신도동과 양주시 장흥면의
경계선에서 발원하여 고양시 관산동, 사리현동, 지영
동을 거쳐 파주시 교하면에서 한강과 만난다. 원당천
합류 이후, 제2벽제교 앞부터 파주시 경계까지 고양
시 덕양구와 일산동구의 경계를 이룬다.

Contents

2021 August **vol.342**



04



16



42

꿈꾸는 고양

- 04 **고양 돌보기**
28청춘창업소
- 06 **시정 ZOOM IN**
한강하구의 생태·역사·평화 이야기
- 08 **시정칼럼**
고양시 주민자치회에 거는 기대
- 10 **고양 역사 산책**
'고양'이라는 지명 속 역사 이야기

함께하는 고양

- 12 **가볼 만한 고양**
뽀뽀(Fun-Fun)한 마켓고양
- 14 **고양하천네트워크가 간다**
고양시 하천 탐방
- 16 **고양시민터뷰**
찾아가는 이동상담소 토닥토닥버스
- 18 **우리 동네 이야기**
- 22 **실버라이프**
-꽃차 마이스터 양성회
-전화금융사기 대처법
- 26 **꿈꾸는 청소년**
2021 청소년 제안창작소
- 28 **아동·청소년 정보**
맞춤형온라인학습멘토링 프로그램

소통하는 고양

- 30 **백과사전**
기업의 ESG경영
- 32 **이달의 문화행사**
- 34 **시정·유관기관 정보**
- 38 **도서관 정보**
- 40 **의정소식 / 건강상식**
- 42 **카툰 /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 44 **고양시 유튜브 핫 클립(Hot Clip)**
- 46 **고양 사랑방 / 문예마당**
- 48 **정책퀴즈**



Cover Story

8월호 표지에는 청년창업
의 꿈을 현실로 실현하기 위
한 공간인 '28청춘창업소'와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교육
을 위해 고양시 청소년들에
게 문화·예술공연 예매권인
'고양ART페이'를 지급하는
사업인 '친구야 공연장 가
자' 프로그램을 담아보았습
니다.

구독 신청 안내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와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발간되는 월간지
<고양소식>을 무료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고양시청 홈페이지 → 늘푸른고양 → 시정소식지 → 구독신청 및 주소변경
- **전화 및 이메일 신청** 고양시청 언론홍보담당관실 고양소식 담당자

전화 031-8075-2093 팩스 031-8075-4904 이메일 gysosic@korea.kr

발행인 고양시장 이재준 **편집인**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에디터** 홍보기획팀장 박현각 / 윤정로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10(주교동) **이메일** gysosic@korea.kr **기획·디자인** 더에이치(주)

편집위원 김민정 / 김은정 / 노정민 / 오문석 / 윤재진 / 이경현 / 이상철 / 이암중 / 임태성 / 정동일 / 정현숙

발행일 2021년 8월 1일

청년 창업의 꿈을 현실로
28청춘창업소

참신한 아이디어로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든든한 조력자 ‘28청춘창업소’. 특히 최근에는 3D 프린터 등을 활용해 시제품 제작부터 영상 촬영까지 원스톱 진행이 가능한 ‘메이커스페이스’를 구축함으로써 청년 창업가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는 중이다. 창업의 꿈과 비전을 갖춘 청년들을 위한 디딤돌, ‘28청춘창업소’를 소개한다.

글. 사진. 이상철(고양소식 편집위원)



28청춘창업소 외관

‘28청춘창업소’는 어떤 곳?

‘28청춘창업소’는 798㎡ 면적에 42개의 컨테이너를 8자 모양, 2개 층으로 만들었다.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사무실은 28개이며,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육장·회의실·카페와 운영사무실 등으로 구성했다. 입주 지원 대상은 모집 공고일 기준 만 39세 미만의 창업자, 또는 예비 창업자이다. 예비 창업자는 입주일로부터 3개월 안에 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야 한다. 기 창업자는 모집 공고일 기준 창업일(사업자등록일 기준)로부터 3년 이내의 기업이 해당한다. 7~8명이 사용할 수 있는 컨테이너 한 동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독립형 비용은 월 10만 원, 두 개 업체가 같이 사용하는 공동형은 월 5만 원이다. 입주 기간은 기본 6개월이며, 6개월마다 연장평가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최대 입주 기간은 만 2년이다.

‘28청춘창업소’는 기본적인 인프라 외에도 지식재산권 출원, 시제품과 홍보물 제작, 전문가 컨설팅,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을 입주 기업들에게 제공한다. 간담회에서는 직원 채용이나 노무·세무 관련 정보를 얻거나, 경영 노하우를 공유하고 업체 간 협업을 할 수 있는 네트워킹의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

기자재실, 시제품촬영실 등 5개 공간으로 이뤄진 28청춘창업소의 ‘메이커스페이스’는 3D 프린터 11대와 레이저 커터 1대, 영상 촬영용 캠코더와 편집 장비 등으로 구성된 스튜디오를 갖췄다. 이를 통해 입주 기업들은 아이디어를 곧바로 시제품으로 만들 수 있고, 동영상 파일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공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청년 기업들의 새로운 도약을 응원

‘28청춘창업소’는 현재 입주 기업들의 새로운 도약을 지원하는 ‘엑셀러레이팅’에 주력하고 있다.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이유정 수석은 “창업 초기인 1~2년 차에는 비즈니스 모델이 아직 안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검증하고 다듬어 가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3~4년 차부터는 실전 단계로서 제품을 양산하고 회사가 자생적으로 수익을 내야 하는 시점”이라며 “우선 3개 업체를 선정해 전문 엑셀러레이팅 기관과 연계한 집중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른 차순위 기업들에 대해서도 프레젠테이션 기술 멘토링이나 비즈니스 모델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수석은 “이곳 업체들을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경기문화창조허브’ 또는 ‘중장년창업센터’의 관련 사업에 연결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합니다”라며 “입주 업체 소개와 대표 상품·서비스를 알리기 위한 인쇄물도 최근 제작해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28청춘창업소

위치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56

문의 031-968-7061~6



1. 28청춘창업소 외관
2. 영상촬영실
3. 3D프린터기





행주산성 역사공원에서 바라본 방화대교

행호를 아시나요? 한강하구의 생태·역사·평화 이야기

조선시대에는 행주산성 앞의 한강하구를 행호(杏湖)라 칭했다. 행주산성의 호수라는 뜻으로, 인근의 창릉천이 강폭을 넓히며 들어오는 것이 마치 잔잔한 호수와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자연과 함께한 우리 조상들의 역사가 깃들여 있는 한강하구. 옛 고양 시민들이 살아온 자취를 느끼며 한 걸음 한 걸음 한강의 아랫목을 걸어 보았다.

글. 사진. 황성민(고양관광 서포터즈)

한강하구에 깃든 생태·역사·평화 이야기

최근 장항습지가 우리나라 24번째 랍사르 습지로 등재되면서 고양시의 생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아름다운 경관 감상은 물론 한강하구에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들에 대해 배울 수 있는 ‘한강하구 생태·역사·평화 이야기’ 프로그램을 통해 고양시의 생태 환경으로 관광을 떠나보자.

이 프로그램은 고양시청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예약을 통하여 누구나 무료로 참가 가능하며, 오전 9시~오후 12시 30분까지 총 3시간 30분간 진행된다. 행주산성 역사공원부터 대덕생태공원까지 이어지는 코스를 걸으며 한강하구만의 특별한 생태와 역사를 배우고, 철책과 옛 군 초소를 통해 평화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어 의미가 있는 여로(旅路)다. 안전이 검증된 코스 내에서 고양시의 역사와 생태 전문가인 생태관광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걷다 보면 3시간 30분의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간다. 지금부터 ‘한강하구 생태·역사·평화 이야기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행호관어도와 한강하구 생태 이야기 ‘행주산성 역사공원’

첫 번째 코스는 행주산성 역사공원이다. 이곳에서는 행호관어도를 통해 280년 전 고양시의 모습 및 그림을 보고 재현한 ‘웅어¹⁾’ 잡이배와 빨래터도 볼 수 있다. 빨래터는 한강을 가장 가까이 가볼 수 있는 곳으로, 버드나무 한 그루가 멋지게 흐드러져 있어 절로 감탄을 자아낸다. 이곳에서는 갈땃잎으로 배를 만들어 띄우거나 물수제비를 뜨는 체험을 할 수 있다. 공원에 마련된 ‘버들 장어 전시관’에서는 한강하구에 사는 물고기와 새에 대한 설명을 보고 들을 수 있으며, ‘한강하구에 서식하는 동식물’을 테마로 부채, 석고 방향제, 실크 프린팅 가방 등 다양한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다.

분단의 아픔과 행호의 의미를 확인하는 곳, ‘평화누리길’

두 번째 코스는 평화누리길이다. 행주산성 역사공원에서 대덕생태공원까지 이어지는 이 길은 과거 철책으로 막혀있어 민간인의 출입이 금지되었던 곳이다. 2000년대 북한과의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지뢰와 철책을 제거하였고, 현재는 안전한 누리길로 탈바꿈했다. 108 건강 계단을 올라 옛 군 초소였던 팔각정 전망대로 올라가면 시원한 한강이 모습이 펼쳐진다. 방화대교가 있는 부근은 고양시를 가로지르는 창릉천이 한강과 합류하는 곳인데, 두 강이 합쳐지면서 유속이 느려져 잔잔한 호수와 같은 모습이 된다. 이 모습을 보고 과거 행주마을의 주민들은 한강을 ‘행호²⁾’라고 불렀다고 한다. 좌측은 산, 우측에는 한강이 흐르는 길을 걷다 보면 한강의 멋진 풍경도 볼 수 있고 동시에 삼림욕도 가능해서 일석이조의 힐링이 가능하다.



평화자전거를 운전하는 라이더들



팔각정 전망대

평화자전거 타고 평화에 대한 기원을! ‘대덕생태공원’

평화누리길이 끝나고 대덕생태공원으로 이어지는 곳으로 가면 초록빛 평화 자전거가 투어 참가자들을 기다린다. 멋진 옷차림을 한 평화라이더가 운전하는 평화자전거는 한강하구 프로그램의 또 다른 재미다. 오전부터 행주산성 역사공원과 평화누리길을 걷느라 지친 다리를 쉬게 해주고, 잘 정비된 대덕생태공원의 도로를 따라 달리며 맞는 시원한 바람은 기분을 상쾌하게 해 준다.

운행 중간중간 대덕생태공원의 주요 명소와 생태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며, 특히 물망초다리에서는 한강하구에만 서식하는 말뚝게를 많이 볼 수 있다. 그리고 과거 탱크의 진입을 막기 위해 만든 ‘용치³⁾’가 있는 용치탐조대에서는 탁 트인 한강의 풍경을 볼 수 있고, 망원경을 이용해 한강하구 새들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

- 1) 웅어: 멸치과의 물고기로, 맛이 좋아 임금님에게 진상되던 물고기
- 2) 행호: 조선시대 행주마을 주민들이 한강을 부르던 말. 창릉천과 한강이 만나 유속이 느려지고 강폭이 넓어져 마치 호수처럼 보인다 하여 행호(杏湖)라 불렀다.
- 3) 용치: 탱크나 장갑차가 지나가지 못하게 막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용의 치아처럼 생겼다고 해서 용치라 부른다.

한강하구 생태·역사·평화 이야기 프로그램

운영 회당 10명(선착순)

소요시간 오전 9시~오후 12시 30분(3시간 30분)

운영시간 9월 29일까지, 매주 수요일(17회), 둘째·넷째 토요일(8회)

예약 고양시 홈페이지 통합예약(<http://www.goyang.go.kr/resve>)

문의 고양시민원콜센터(031-909-9000), 고양시 관광과(031-8075-3403)

고양시 주민자치회에 거는 기대

“우리 마을의 주인은 바로 나!” 지난 2013년 시범 운영을 시작한 ‘주민자치회’. 풀뿌리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지역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힘차게 달려왔는데도, 정작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성과를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 고양시가 주민자치 전면 전환을 준비 중인 이 시점에서 ‘주민자치회’에 대해 파헤쳐 보자.

글. 석호원(고양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주민자치와 주민자치회

현재 주민자치의 시간은 주민자치회를 가리키고 있다. 그렇다면 주민자치회는 무엇일까? 더 정확하게는 그 역할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민자치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주민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그리고 자치의 사전적 의미는 ‘자신에 관한 일을 스스로 다스림’이다(표준국어대사전). 사전적 의미로 보면 주민자치는 ‘일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자신과 이웃에 관한 문제를 자신의 책임으로 스스로 처리하는 것’과 유사한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주민자치는 미국과 영국에서 발달한 것으로 지역주민이 자신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지역의 문제를 결정하고 처리하는 것으로 소개되고 있으며,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방의 공공사무를 결정하고 처리하는, 주민참여에 기반을 두는 제도를 의미한다(이달곤 외, 2012). 이 외에 주민자치에 대한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연구에서 핵심적 구성 개념으로 일정한 지역, 지역 문제의 주체적 해결, 정책과정에서의 참여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주민자치는 ‘근린단위에서 자치역량을 구축한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자신과 관련된 지역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기 위해 참여하는 제도’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곽현근, 2015). 또한, 개념적으로 볼 때는 대표성과 책임성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

* 주민자치의 개념은 다양한 범주에서 제시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주민참여를 포함한 중범위적 수준에서 주민자치를 개념화하고자 한다.

출된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주민 중심의 참여민주주의와 속의민주주의 실현 기제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민자치가 실질적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1) 주민의 자치 효능감 제고를 위한 주민 중심의 지역 문제해결 제도 마련, 2) 지방정부(의회)가 주민의 의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는 유의미한 참여 설계, 3) 주민의 자치역량 강화 및 강화된 역량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속의 공간의 확충 등이 요구된다. 주민자치회는 바로 이러한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제도’의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 즉 주민자치 실질화는 바로 그 중심조직인 주민자치회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의 역할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같은 법에서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목적으로 읍·면·동에 설치된 주민자치조직’으로 규정하고 있다. 2013년 7월 시범사업이 시작되었으며, 2020년 6월 기준 전국 626개 읍·면·동, 118개 시·군·구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다.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 기구로서의 역할 미흡, 대표성과 자율성 그리고 책임성 등의 한계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그 존립 근거와 대표성 그리고 기능 면에서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주민자치회는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관계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들을 수행하며, 주민총회 개최, 자치(마을)계획 수립, 공동체 형성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와 동 행정기능 중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처리 등을 수행한다. 이는 주민자치회가 지역공동체의 회복 및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지역 문제의 발견과 해결 모색에 중심이 되는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가장 근접한 위치에서 주민의 의사를 행정에 반영하는 통로 역할 역시 수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주민의 참여와 속의에 의한 자치계획 수립과 주민총회를 통한 주민의 의사반영은 풀뿌리 주민자치와 주민의 자기결정권 확보의 중요한 기제로서, 참여 및 속의민주주의 고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민자치회가 수행해야 할 지역공동체 회복, 주민과 행정 간 협치의 가교, 주민참여의 플랫폼, 주민주도의 지역 문제해결을 통한 주민자치 효능감 증대 등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토대(주민자치회로의 전환에 대한 주민의 합의, 주민자치회 위원의 구성방식, 내부 운영방식, 행정·제도적 지원, 위원의 역량 강화, 주민의 참여 유도, 주민자

치 관련 행위자와의 네트워크 방안 등) 필요하며, 그 역할 수행과정에서 다양한 시행착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주민자치회가 전환의 계곡을 넘어 안정적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

고양시는 2016년 풍산동과 창릉동을 시작으로 2021년 현재 7개 동(풍산동, 창릉동, 고양동, 식사동, 정발산동, 주엽1동, 화정2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었으며 2022년 39개 동으로 확대시행을 구상 중이다. 아이가 처음부터 잘 뛸 수 없듯이 아직 걸음마 단계인 고양시 주민자치회가 풀뿌리 주민자치와 대안적 민주주의의 심화를 위한 주민대표조직으로 비상하기 위해서는, 제도전환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시행착오에 대해 냉소가 아닌 건설적 비판과 격려 그리고 주민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현재 고양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의 전환 확대를 앞두고 그동안의 시범시행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체계적 진단을 수행함과 동시에, 주민토론회 및 설명회를 통한 주민과의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주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 주민 중심의 참여와 속의민주주의의 구현 등은 이미 선언적 언명이 아닌 시대정신(Zeitgeist)이 되었다. 이러한 시대정신은 자치역량을 지닌 시민을 전제로 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고양시는 다른 어떤 도시보다 귀중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고양시민의 일원으로서, 고양시 그리고 고양시 주민자치회가 이러한 자산을 바탕으로 시대정신을 실현하고 우리나라의 주민자치를 선도하는 도시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

이달곤·하혜수 정정화 외(2012). 「지방자치론」, 박영사.
곽현근(2015). “주민자치 개념화를 통한 모형 설계와 제도화 방향” 한국행정학보 49(3), 279-302



고양은 어떻게 고양이 됐을까?
‘고양’이라는 지명 속
역사 이야기

이름에는 역사가 담겨있다. 그리고 그 역사에는 당시를 살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흐르고 있다. 그렇다면 ‘고양’이란 지명에도 이에 얽힌 역사와 이야기가 담겨있을 것이다. 과연 고양시의 이름은 언제부터 고양이었을까? 그리고 왜 고양이 된 것일까? 이러한 물음의 답을 찾기 위해 『삼국사기』를 들춰봤다. 지금부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자.

글. 최슬기(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강사)

고양은 고봉과 덕양의 합칭

고양은 한자로 ‘高陽’이라 쓴다. 지역명을 새로 만들 때 서로 다른 지명의 한 글자씩 따서 이름으로 삼는 경우가 대다수이듯, 고양도 고봉(高烽)의 ‘고(高)’와 덕양(德陽)의 ‘양(陽)’을 합쳐서 만든 것이다. 고봉과 덕양의 명칭을 통합한 것은 조선 초기, 1413년(태종13)의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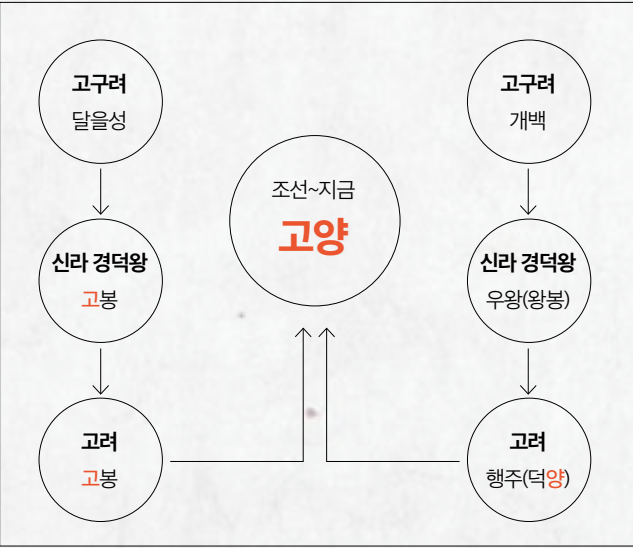
“행주는 예전에 덕양현이었고, 고봉은 그 덕양(행주)에 부속된 지역이었는데, 지금 고봉이라고만 부르게 되어 덕양(행주)이 오히려 유명무실하게 되었으니 청컨대 이를 고쳐주소서”라는 어느 선비의 주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지금의 ‘고양’이란 지명이 생겼다고 한다.

고봉은 그렇다고 치고, 그렇다면 행주는 언제 덕양이라고 불리게 된 것일까? 덕양은 고려 초기 성종대에 행주를 가리키는 별칭으로 쓰였다고 한다. 더 이상의 구체적인 기록이 없어 자세히 알 수 없으나 행주와 덕양은 호환되는 명칭인 것으로 보인다.

행주(덕양)는 고려 초기 생긴 지명으로 그 전 왕조인 신라 경덕왕대에는 왕봉(王逢) 또는 우왕(遇王)으로 불리었다. 신라 경덕왕대에는 지역 명칭을 전부 한자로 바꾸는 대대적인 작업이 진행된 적이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바뀐 상당수의 지명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경우도 많다. 그러면 지금의 고양을 탄생시킨 ‘고봉’과 ‘덕양’은 어떠한 경위로 그러한 이름을 갖게 된 것일까?

고봉과 덕양의 기원은?

고양의 ‘고’의 연원이 되는 고봉(高烽)은 신라가 이 지역을 차지하기 이전에는 고구려의 영역이었고, 고구려 때의 이름은 달을성(達乙省)이



었다. 신라 경덕왕 때 고봉으로 바꿨는데, 그 이유는 한씨(漢氏) 여인이 높은 산꼭대기(高)에서 봉화(烽)를 피워 고구려 안장왕(安臧王)을 맞이한 곳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편 고양의 ‘양’의 연원이 된 덕양(행주)은 신라가 이곳을 차지하기 전에는 개백(皆伯)이었고, 신라 경덕왕 때 왕봉(王逢)·우왕(遇王)으로 고쳤는데, 이곳이 개백의 한씨 미녀가 안장왕(王)을 맞이한(遇, 逢) 땅이었기 때문이라고 전하고 있다. 왕봉 또는 우왕이라고 하였으나 모두 ‘왕을 만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누가 어떤 왕을 만났던 것일까?

‘고양’의 연원, 고봉과 왕봉(우왕)은 모두 한씨 여인이 고구려의 안장왕을 만났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안장왕은 고구려의 제22대 왕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수왕의 증손자이자 문자왕의 아들이고, 한씨 여인은 당시 개백현에 살던 사람이다. 개백현은 고구려가 이 지역을 차지하기 이전에는 백제의 땅이었다. 고구려왕이 백제의 여인을 만나러 왔다는 이야기가 지금 고양시가 ‘고양’으로 불리게 된 첫 페이지에 자리하는 것이다. 이들에게는 과연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

한씨 여인과 안장왕이 만난 곳, 고봉과 왕봉(우왕)

이 둘의 사연을 처음 전하는 『삼국사기』에는 자세한 서술은 없고, 다만 “한씨가 안장왕을 맞이한 곳이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라는 설명만 있을 뿐이다. 다행히 신채호의 『조선상고사』에서 구체적 이야기를 전하는데,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고구려 안장왕이 태자 시절 장사꾼의 모습을 하고 백제 땅이던 개백 지역을 왕래하던 중 아름답기로 소문난 한씨와 마주치게 되었다. 이 둘은 곧 사랑을 키워 부부가 될 것을 약속하게 되었고, 안장왕은 자신의 정체를 조용히 밝히며, “나는 본래 고구려의 태자라요. 귀국하여 많은 병사를 이끌고 이 땅을 취하여 반드시 그대를 부인으로 맞겠소”라고 말했다. 이후 고구려로 돌아온 안장왕은 여러 차례 백제를 공격했으나 번번이 패배했다. 그 와중에 한씨는 그 지역의 관리와 억지로 혼인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한씨가 완강히 거부하자 관리는 그녀를 옥에 가둬고, 이 소식을 들은 안장왕은 올밀이라는 장수와 계락을 세워 개백을 공격하여 끝내 승리했다고 한다. 이로써 한씨와 안장왕은 재회하게 되고, 이후 그 지역에 고봉과 왕봉(우왕)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신채호가 『해상잡록』이라는 책을 인용하여 『조선상고사』에 담은 것인데, 『해상잡록』은 현재 전하지 않아 그 원형을 확인할 수 없다. 또한, 6세기 전반 당시 백제와 고구려의 경계선이 어느 지점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역사학계에서도 논란이 분분하여 위와 같은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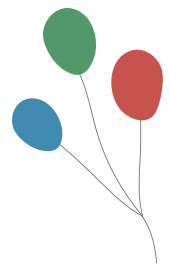


을 전부 역사적 사실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다만 원초적인 형태의 기록을 담은 『삼국사기』에서 확인되는 한씨와 안장왕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가 적어도 고려시대 이전부터 전승되어 왔음을 짐작케 한다. 역사적 변천 속에서 고봉과 왕봉이라는 지명 중 왕봉은 고려시대에 행주로 바뀌면서 덕양으로도 불리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고봉과 덕양을 합친 고양이라는 지명이 탄생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고양이라는 이름의 첫 장에 바로 한씨와 안장왕의 이야기가 흐르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사랑보다는 혐오가 만연한 요즘 같은 때 지명으로써까지 안착하게 된 두 사람의 러브스토리는 우리에게 소중한 울림을 준다. 이름에는 역사가 담겨있다. 그리고 그 역사에는 당시를 살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흐르고 있다. 고양시는 한씨와 안장왕의 사연에서 나아가 최근에는 발음이 유사한 고양이를 캐릭터로 활용하여 귀엽고 친근하게 그 이미지를 변화시켜 나가고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름이 변하듯, 그 이름을 통해 새로운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것 역시 그 시대가 묻어 있는 소중한 역사의 한 장면이다. 🌈



최슬기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에서 <위만조선과 흉노의 ‘예구’ 교역>으로 석사학위를 받았고, 같은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수료하였다. 현재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연구원,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한국고중세사 강사이다. 2016년에 구성된, 신진역사연구자 모임 ‘만인만색연구자네트워크 미디어팀’에서 현재까지 ‘역사공작단’이라는 역사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공저로 <만인만색 역사공작단>(서해문집)이 있다. 매 순간 의미를 추구하며 존재와 의식이 일치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있다.



Fun 하게 즐기는 고양시 문화 축제 뽐뽐(Fun-Fun)한 마켓고양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며 즐길 수 있는 '뽐뽐(Fun-Fun)한 마켓고양'은 버스킹 공연과 영화제 등으로 다양한 볼거리와 놀거리를 제공한다. 조용한 일상에 한줄기 시원한 활기를 불어넣고 싶다면, 한 달이 저무는 토요일 밤 고양관광정보센터 뒤뜰로 향해보자.

글. 사진. 이예슬(고양시 관광과 청년인턴)



'낮은음자리' 공연을 관람하는 시민들

뽐뽐한 마켓을 열었습니다

뽐뽐(Fun-Fun)한 마켓고양은 플리마켓을 비롯한 버스킹 공연, 옥탑방 영화제 등의 문화예술 행사를 제공하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다. 2021년 12월까지 매월 넷째 주 토요일 고양관광정보센터 뒤뜰에서 열리는 이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에게 문화생활을 즐길 기회를 선사한다.

지난 6월 26일 처음으로 진행된 뽐뽐(Fun-Fun)한 마켓고양에서는 어떠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었는지 현장을 찾아가 보았다.

#1 고양시 관광상품 플리마켓

플리마켓에는 고양시 브랜드의 관광기념품 업체와 지역 소상공인, 지역 예술가들이 참가하여 여러 가지 지역관광상품을 홍보했다. 고양시에서 활동하는 수공예 판매자들은 이날 시민들에게 가죽 공예, 한지 공예, 수제 비누 및 향초 만들기 등의 일일 체험 기회를 마련해 아이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 이 외에도 많은 지역 소상공인들과 예술가들은 소비자들과 직접 교류하고 반응을 살피며 수공예품과 화훼 등을 판매하고 홍보하였다.

#2 거리 버스킹

버스킹 공연에서는 지역 아티스트를 발굴하고 소개하는 장을 마련했다. 통기타 밴드인 '소나무', 어쿠스틱 기타를 통해 공연하는 '낮은음자리', 전자 바이올린 퍼포머 '그레이스', K-Pop 댄스그룹 '베이비스'는 지난 6월 버스킹 공연을 통해 시민들에게 활기찬 들을거리를 제공했다. 많은 시민이 버스킹 공연을 관람하며 코로나19로 인해 잊고 있던 공연 문화를 즐길 수 있었다. 뽐뽐한 마켓고양에서는 버스킹의 주요 공연인 댄스와 밴드 연주를 보고 들을 수 있으며, 8월부터는 '마임' 등과 같은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추가될 예정이다.

#3 고양 옥탑방 영화제

고양 옥탑방 영화제는 매월 넷째 주 토요일 밤 8시부터 고양관광정보센터 루프탑에서 진행된다. 영화제에서는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만날 수 있다. 지난 6월에 열린 고양 옥탑방 영화제에서는 애니메이션 영화 '업'이 상영됐다. 고양 옥탑방 영화제는 고양관광정보센터 인스타그램(@goyang.tic)을 통해 무료로 예약할 수 있다. 선착순 20명까지 예약을 받는다고 하니 미리미리 예약해 기회를 놓치지 말자.

특별한 추억을 선물하는 뽐뽐(Fun-Fun)한 마켓고양

연말까지 진행될 뽐뽐(Fun-Fun)한 마켓고양은 코로나19로 인해 문화 생활에 목말라 있는 시민들에게 다채로운 즐길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침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시장의 반응 역시 확인하기 어려웠던 지역 소상공인과 예술가들도 판매와 홍보활동을 통해 시장의 직접적인 반응을 살펴볼 기회를 제공한다.

뽐뽐(Fun-Fun)한 마켓고양은 12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열릴 예정이다. 답답한 일상에 소중한 추억이 되어줄 뽐뽐(Fun-Fun)한 마켓고양에 참여하여 특별한 선물을 가져가길 바란다. 🎉



뽐뽐(Fun-Fun)한 마켓고양 전경



고양 옥탑방 영화제

뽐뽐한 마켓고양

운영 2021년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위치 고양관광정보센터 일대(고양시 일산동구 중양로 1271-1)

오시는 길 정발산역 2번 출구에서 하차 후 일산문화공원 방향으로 82m 직진

'옥탑방 영화제' 예약 고양관광정보센터 인스타그램(@goyang.tic)

홈페이지 <https://www.goyang.go.kr/visitgoyang/index.asp>

문의 고양시 관광과(031-8075-3408)



생태계교란식물 제거 작업

살아 있는 생태의 보고 고양시 하천 탐방



고양시에는 국가하천 한강을 비롯해 공릉천과 창릉천 등 지방하천 18개, 소하천 60개 등 79개의 하천이 있다. 고양하천네트워크는 에코코리아, 고양자연생태연구회, 어린이식물연구회 등의 단체와 함께 모니터링을 진행해 고양시 하천에 서식하는 생물종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에서 하천의 건강성을 파악하고 도시생물 다양성 보전에 필요한 정보를 축적해나가고 있다.

글. 사진. 고양하천네트워크



중상류 생태계의 표본, 공릉천

북한산과 한강을 잇는 중요한 생태축으로, 고양시 구간은 수량이 풍부하고 깨끗하여 중상류 하천의 생태계를 잘 보여준다. 에코코리아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공릉천 상류구간을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시민 모니터링해왔다. 이를 통해 멸종위기야생생물 Ⅰ급인 수달을 비롯하여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인 수리부엉이, 흰목물떼새, 샛의 서식을 확인하는 등 이제까지 식물 53과 168종, 육상곤충 84과 163종, 조류 27과 54종, 담수무척추동물 38과 68종, 어류 8과 28종을 확인했다. 특히, 수달 흔적의 발견은 매우 의미 있는 결과로, 공릉천-북한산 생태축의 건강성을 대표하는 지표가 될 것이다.



주민의 노력으로 되찾은 생태계, 대장천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에서 시작하여 신평배수펌프장에서 도촌천과 만나 한강으로 유입되는 소하천으로, 고양시가 하천 수질정화의 일환으로 원능수질복원센터에서 복원된 재이용수를 활용하면서 일정 수량이 유지되고 하천 수질이 개선돼왔다. 2019년에는 대장천생태습지가 완공되기도 했다. 고양자연생태연구회는 대장천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왔는데 확인한 철새들만 여름철 꼬마물떼새, 제비, 백할미새, 알락할미새, 노랑할미새, 쇠백로, 중대백로, 왜가리, 겨울철 청둥오리,

알락오리, 황오리 등이다. 대장천생태습지에는 4월 잉어 산란 철이 되면 붉은색으로 혼인색을 띤 잉어들이 줄줄이 올라오는 게 목격되기도 하는데, 습지 데크 물길 위쪽으로 주민들이 직접 '붕어, 잉어, 가물치 물고기 보호구역'이라는 안내판을 붙여 놓기도 했다. 시민들에게 깨끗한 생태하천을 돌려주고자 하는 고양시의 노력이 주민의 자발적인 환경보호로 이어지는 따뜻한 예라 하겠다.



고양시 최초의 금개구리 서식지, 도촌천

일산동구 식사동에서 발원하여 토당동에서 한강으로 합류하는 지방하천으로, 상류 구간은 건달산천으로 불린다. 도촌천은 어린이식물연구회에서 모니터링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 2017년 9월 고양시 최초로 금개구리를 발견해 당시에 핫한 뉴스가 되기도 했다. 금개구리는 2012년 5월 21일 멸종위기종 야생동식물 2급으로 지정된 한국의 고유종으로 앞다리가 뒷다리보다 발달해 있으며 암수 모두 움음주머니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에는 모니터링 과정에서 주요 하천 생태교란식물 중 하나인 가시박을 먹는 왕담배나방이 발견되어 지속적인 관찰을 해오고 있기도 하다.



다양한 종이 공생하는 곳, 대화천

고양생태공원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강사들과 하천 활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하천생태동아리를 결성해 2018년부터 모니터링 활동을 해오고 있다. 대화천의 대표 깃대종은 2012년 5월 31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된 붉은발말뚝개이다. 개미 등이 사각형이고 집게발과 이마가 붉은색이며 말뚝 냄새가 난다고 하여 이름 붙여졌다. 장항습지에서 드물게 관찰되다 대화천 모니터링 과정 중 2019년 7월



생태교육



도촌천에서 촬영 된 금개구리



처음 발견되었다. 이 외에도 육안으로 관찰 가능한 종으로만 식생 총 53과 133종, 곤충은 총 8목 54과 114종 정도가 된다. 백로과 새들이 물고기를 먹고 살고 민물가마우지도 잠수하여 사냥하는 모습이 자주 관찰되며, 대화천 인근 아파트 옥상에서 황조롱이가 번식하기도 했고, 노랑할미새도 오랫동안 머물며 하천변에서 번식을 하기도 한다.

공공일자리를 활용한 생태계교란식물 제거 활동

고양시는 생태하천 보전활동을 위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고양희망청년인턴 등 공공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단풍잎돼지풀, 환상덩굴, 가시박 등 생태계교란 외래식물 제거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생태전문 지식을 갖춘 신중년 드림하천 매니저를 선발하여 현장관리인력으로 활용하고 고양하천네트워크 모니터링 단체에서 공공일자리 참여자를 대상으로 생태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있다. 이런 과정으로 참여자의 생태감수성을 제고하고 생태교란식물의 발달 단계에 따른 맞춤형 제거로 작업 효율도 올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추후 모니터링까지 실시할 예정이어서 단순 일자리 창출이 아닌 생태하천 보전, 시민 환경운동 확산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고양하천네트워크 모니터링 단체

하천생태동아리(손순희)	010-2247-8692
고양자연생태연구회(이정희)	010-5295-4213
어린이식물연구회(심은영)	010-2209-6082
에코코리아(이명혜)	010-3204-6834



찾아가는 이동상담소 토닥토닥버스



시민의 마음건강 지킴이 찾아가는 이동상담소 토닥토닥버스

고양시는 시민들의 마음을 보살피고 마음상담에 대한 고정관념을 허물기 위해 찾아가는 이동상담소 ‘토닥토닥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친근한 외관으로 시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간 토닥토닥버스와 이곳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소영 님을 찾았다.

글. 박다연(편집부) 사진. 조병우

오늘도 토닥토닥! 내일도 토닥토닥!

2019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토닥토닥버스는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을 보내느라 자신의 마음을 보살필 시간이 없는 현대인들을 돌보기 위해 마련된 이동식 상담소다. 고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고양시자살예방센터, 고양시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함께 운영하며, 고양시 곳곳에서 시민과 만난다. 특히, 정신건강 위험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1:1 상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진료기록이 남지 않고 상담료 등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전문의 상담결과 지속적인 상담 또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 전문요원’과의 상담으로 이어갈 수 있다.

현대인의 고질적인 고민, 스트레스 다스리기

지난 2월부터 토닥토닥버스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소영 님은 한 달에 하루,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그는 우울증과 우울함은 구분되어야 하며, 그 치료에는 왕도가 없다고 말한다. “보통 다들 우울함을 느끼기 시작한 시점은 알고 계세요. 하지만 우울한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면 부족이나 식욕 감퇴, 사회관계 문제 등 여러 증상이 2주 이상 오래 이어진다면 이는 병으로 판단하고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토닥토닥버스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 자신이 느끼는 우울감이 단지 일시적인 것인지, 치료를 받아야 하는 수준인지를 판단해보고 싶어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는 코로나19 이후 외부활동이나 활동적인 취미생활이 줄어든 것도 우울감 호소의 한 원인이 될 수 있으며,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는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본인이 컨트롤할 수 없는 스트레스가 있다면 최대한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며 일주일에 4번, 30분 이상 땀이 흐를 정도로 힘든 운동을 하는 것이 좋아요. 병원 방문 자체가 부담스러우시다면 이렇게 토닥토닥버스 같은 곳을 찾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덕양구청 앞 토닥토닥버스



한 달에 한 번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양소영 전문의

토닥토닥버스와 함께 마음건강 찾기

그렇다면 화를 다스리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전문의를 역시 사람인지라 분노나 우울감을 느낍니다. 저 같은 경우엔 지극히 현실적인 생각을 하려고 노력해요. 이럴테면 누군가 저를 카메라로 찍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화를 내면 카메라에 찍힐 것이고, 보호자가 민원을 넣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순간적인 화가 사그라들죠(웃음).”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아 적절한 치료나 약물을 처방받는 것처럼 마음이 아플 때도 병원을 찾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정신과 상담이나 치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선입견이 존재하는 우리나라의 정서상 많은 사람들이 선뜻 병원을 찾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하는 양소영 님. 그는 시민들이 아프고 상처받은 자신의 마음을 좀 더 전문적으로 돌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의사들도 힘들면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기도 해요.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과한 부분을 덜어내는 수단 중 하나가 병원일 뿐이지 그리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토닥토닥버스도 언제나 열려 있으니, 주저하지 마시고 찾아주시면 좋겠어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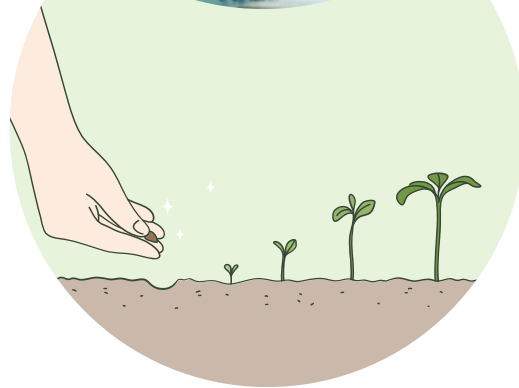
토닥토닥버스 운영 안내

운행일정 화요일(아동·청소년), 수요일(노인), 목요일(청장년)
이용방법 사전예약제
운행일정 홈페이지(www.goyangmaum.org) 참조
문의 고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968-2333, 내선번호 406)
고양시자살예방센터(031-927-9275)
고양시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031-908-3567)

행복한 반상회

환경을 위한 작은 실천 행복한 반상회와 함께해요

글. 사진. 류재숙(행복한 반상회 회원)



※ 행신동 주민이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행복한 반상회(밥반 맛볼상)은 행복중심생협 조합원들이 모여 만든 마을공동체이다. 가족을 위해 건강한 밥상을 차리고 이웃과 밥 한 끼, 마음 한 끼 같이 하며 서로의 삶을 응원하기 위해 시작했다. 행복한 반상회는 작년 마을공동체사업에 도전해 첫 발을 내디뎠다. 첫 번째 활동은 밥상 차리는 것에 고민이 많은 주민들이 동네에서 음식 잘하는 이웃을 만나 요리비법을 글이 아닌 손으로 배우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 과정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이웃에 공유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대면활동이 어려워 줌(ZOOM)을 이용한 온라인 모임을 시작했다. 차 한잔 들고 줌으로 이야기를 시작한 첫 모임은 이야기가 아니라 절규에 가까웠다. 코로나19로 아이들의 방학은 기약 없이 이어져 매일 하루 세 끼를 차리고 또 장을 봐야 했다. 이제 밥상 차리기는 생활이 되었지만, 문제는 수북이 쌓이는 플라스틱 쓰레기였다. 분류한 재활용 용기의 라벨을 제거하고 씻어서 말려 분리배출하며 환경에 대한 고민을 마을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었다.

마을에서 환경이야기를 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 활동을 고민하던 때에 환경에 관심이 있는 '행신동 주민자치위원회'와 행신동에서 자란 청년들의 작은 모임 '평범한 일상을 살고 시퍼'를 만나게 되었다. 여러 번의 회의를 통해 함께 행신동 친환경마을 만들기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행신동 친환경마을 만들기 밴드는 마을이웃에게 열려 있다. '미션인증: 환경을 위해 이런 실천하고 있어요!' 코너를 통해 작은 실천을 공유하고 응원하고 있다.

천연수세미심기를 시작으로 환경강좌 '코로나19와 지구환경문제 알아보기', '순환경제로 가는 길, 슬기로운 분리배출생활'과 빈 화분으로 공기정화식물심기를 통해 반려식물에 대한 활동도 진행했다. 다음 활동으로 업사이클링을 계획하고 있다. 거창한 활동보다는 같은 관심사를 가진 동네 이웃들과 함께 듣고 이야기를 나누는 일상이 고맙다. 모임 후에는 평가모임을 진행하여 다음 활동을 준비하는 것도 또 하나의 즐거움이다.

행복한 반상회는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 문제를 동네 사람들과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함께 알아보고 작은 실천을 통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누군가 내 말을 들어주고 긍정해주고 함께 고민해 준다면 앞길에 막막해도 힘내서 살아지는 게 더불어 사는 삶 아닐까. 오늘도 행복한 반상회는 소소한 행복을 찾아간다.

까치와 호랑이

한국 전통 민화가 좋아서 모였어요

글. 사진. 채영화(까치와 호랑이 회원)



※ 식사동 주민이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민화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까치와 호랑이' 공동체를 만들었다. 우리 공동체는 민화를 통해 민족의 정서와 맛깔스러운 유머를 표현하고 배워가면서 다양한 작품을 제작해 아트 페어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공모전 및 전시회 등에도 참여해 우리나라 전통 민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민화가 가진 의미대로 대중과 친근하고 가까운 생활 속 그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꾸준히 그 뜻을 이어가고 있다.

까치와 호랑이는 주 1회 정도 모여 민화를 그리고 이야기도 나눈다. 서로의 민화에 애착을 가지고 차분한 힐링도 하면서 소통하고 있다.

민화는 장소와 용도에 따라 종류를 달리하는데, '화조도'는 꽃과 함께 의중계 노니는 한 쌍의 새를 소재로 부귀를 상징하는 모란꽃, 연꽃 등이 함께 구성되어 있다. '어해도'는 물속에 사는 붕어, 잉어, 거북이 등을 소재로 한 그림으로, 꽃과 해초를 곁들여 그린 경우도 많다. 잉어를 아침 해와 함께 그리는 경우 출세를 기원한다든지, 경축일의 축하용으로 사용한다.

'작호도'는 소나무 가지에 앉아 있는 까치와 그 밑에서 이를 바라보며 웃는 듯이 앉아 있는 호랑이를 소재로 한 그림인데, 잡귀의 침범이나 액을 막는 일종의 벽사용으로 그려졌다고 한다. '십장생도'는 장수의 상징인 거북, 소나무, 달, 해, 사슴, 학, 돌, 물, 구름, 불로초를 한 화면에 배치하여 장식적으로 처리한 그림이다.

이 밖에도 민화는 산수도, 풍속도, 고사도, 문자도, 책가도, 무속도 등 다양한 유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민화는 한국적인 정서가 짙게 내재된 그림이라 할 수 있다.

텃밭대장 부엌대장

건강한 밥상을
만들어가는
텃밭대장 부엌대장

글. 사진. 서고은(텃밭대장 부엌대장 회원)



※ 대화동 주민이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텃밭대장 부엌대장’은 대화동에 거주하는 10명의 아줌마들 모임이다. 모임에서 친분이 있는 사람들끼리 함께하면 좋을 만한 활동들을 얘기하다가 텃밭에서 여러 작물을 함께 수확해서 나누기도 하고 그 수확물로 김치, 장아찌, 과일청과 등을 이용한 음식을 만들기로 했다.

텃밭에서 재배한 작물을 기본으로 하여 부족한 농산물들을 구입해 구성원들과 함께 음식을 만드는 일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귀한 경험이었다. 맞벌이 가정이 많아지면서 간단하게 대충 때우던 식사시간을 우리 손으로 직접 기르고 만든 음식들로 채워 온 가족이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이 현실이 된 것이다.

더불어 우리 마을에는 재미공작소로 월 2회 봉사활동을 오는 학생들이 있다.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봉사활동시간에 아침식사를 거르고 오는 친구들이 대부분이라 마음이 좋지 않던 차였다. 우리 공동체는 동네 환경개선을 위해 봉사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텃밭에서 수확한 작물들로 월 1회 도시락 만들기 활동을 시작하였다. 봉사 후 학생들이 직접 요리를 하여 도시락을 만들어 가는 모습을 보며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지금까지 ‘텃밭대장 부엌대장’에서 해온 공동체 활동은 이러하다. 앞으로 이루어질 바질페스토 만들기나 배추재배 후 김장하기 등 만들어볼 음식들이 많아 더욱 기대된다.

[4월] 텃밭 갈기와 퇴비 뿌리기, 고랑 만들고 멀칭하기, 모종심기와 씨 뿌리기, 명이나물 장아찌 만들기

[5월] 열무 수확하기, 쌈채소 수확하기, 열대농작물 심기, 열무김치 담그기, 마늘장아찌 만들기, 오이지 담그기

[6월] 매실청 담그기, 봉사단과 함께 사각김밥 만들기

[7월] 자몽청, 자두청 만들기, 봉사단과 함께 햄버거 만들기

산 두 로 제 로 웨 이 스트 챌 린 지

지구를
위한 실천
제로웨이스트
챌린지

글. 사진. 문소라(산두로 제로웨이스트 챌린지 회원)



※ 정발산동 주민이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2021년 1월, 내가 사는 빌라 단지에선 우유팩과 투명페트병을 따로 분리배출하라는 공고가 붙었다. 안내방송도 여러 차례 나왔다. 페트병은 내용물 행구고, 라벨을 뗀다. 납작하게 눌러 뚜껑을 닫았다. 우유팩도 내용물을 행구고, 잘 말려, 납작하게 펼쳤다. 그런데 수거차량이 오더니, 페트병과 플라스틱을 그냥 한번에 담아가는 것이 아닌가? 우유팩도 일반 종이와 같이 수거됐다. 아직 저들은 제도가 바뀌었다는 걸 모르는 걸까?

마침 시민단체에서 진행하는 에코페미니즘 모임에서 이런 얘기들을 나눌 기회가 생겼다. 하나둘 모인 우리는 모였다 하면 ‘나의 제로웨이스트 실천법’을 얘기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우리 공동체 ‘산두로 제로웨이스트 챌린지’ 모임이다.

우리는 쓰레기 문제에 관한 기사를 함께 읽고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았다. 아크릴로 수세미를 떼서 선물하던 것을, 천연실 수세미로 바꿨다. 일회용 지퍼락이 아까워 열 번도 넘게 씻어서 썼다. 빨대는 거절했고, 집에서부터 텀러간 용기에 아이스크림을 사왔다. 서울에서 인기 있다는 제로웨이스트 가게에 방문했고, 3호선 정발산역사에 설치된 공병수거 기계 ‘수퍼반’도 이용했다. 그사이 우리는 스스로 ‘준전문가’ 수준의 제로웨이스터가 되었다. 7월 한 달 동안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에서 진행되는 ‘페트병뚜껑 모으기’를 알리고, 이 병뚜껑이 업사이클링(재활용)되는 과정을 모니터할 수 있게 됐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플라스틱 선별장 답사’와 ‘자원순환 프로젝트’ 등을 꾸준히 해나가려 한다.

누군가는 남이 알아주지도 않을 일, 왜 그렇게 불편하게 사냐고 한다. 그런데다고 바뀌겠냐고. 괜찮다. 이렇게 해야 쓰레기를 바라보는 불편한 우리 마음이 편안해진다. 더구나 이건 우리 이웃, 미래 세대와 지구를 위해서도 좋은 일!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다 보니 신난다. 🌱

“꽃과 함께 온전한 심 누리세요”

꽃차 마이스터 양성희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꽃을 선물하는 이유는 온 힘을 다해 피는 꽃을 통해 상대방이 그간 겪은 수고와 노력을 잘 알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김영하 작가는 말했다. 꽃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생기와 에너지를 선사하곤 한다. 양성희(69) 님은 따뜻한 물을 만나 다시 피어오르는 꽃잎처럼, 우리네 삶 모든 순간이 귀하게 피어나길 소망한다고 말한다.

글. 박다연(편집부) 사진. 조병우



꽃과 함께 시작한 제2의 인생

그는 원래 꽃을 취미로만 즐기던 사람이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 꽃꽂이 모임을 이끌며 성전 꽃꽂이 봉사활동을 해 오던 것이 이제는 그의 삶을 이끄는 주축이 됐다. 꽃차 마이스터, 꽃꽂이사범(1급), 성전 꽃꽂이 강사, 커피 바리스타, 궁중요리 연구가까지 다방면의 재주를 갖추고 있던 그에게 꽃차 마이스터라는 직업은 어쩌면 필연적인 것일지도 몰랐다. “취미로만 해오던 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자고 마음 먹었어요. 소소하지만, 제가 가진 능력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즐기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었고요. 꽃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꼭 내 것이 아니어도 괜찮고, 바라만 보아도 기분 좋아지는. 그런 꽃의 에너지를 차라는 매개를 통해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면 어떨까 고민하던 것이 지금에 이르렀네요.” 그는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통해 남은 인생을 채워나가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은 꽃을 가꾸고 꽃으로 차와 음식을 만들어내며 꽃꽂이와 꽃차 강습을 하는 카페로 이어졌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하나하나 정성 들여 카페와 공방을 만들어나갔고, 2년 전 드디어 카페 문을 열었다. “저는 이 공간이 단순히 차만 마시는 곳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꽃차문화를 널리 알리는 공간으로 활용되었으면 해요. 일상에 지친 심신을 내려놓고 오롯이 자기 자신과 꽃차에 집중할 수 있는 곳이 된다면 좋겠어요.”

다시 피어나는 꽃차처럼

그와 꽃차의 인연은 10년 전, 우연히 신문에 난 꽃차 관련 서적을 보게 되면서 시작됐다. 꽃꽂이를 오래 해왔던 터라 당시엔 생소했던 꽃차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또 다른 취미생활로 삼아보고자 담양에 있는 꽃차문화진흥협회를 찾아갔다. 꽃차는 그렇게 그의 인생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꽃차는 외국에서 들어온 것이 아닌, 우리나라 고유의 가장 오래된 생활문화 중 하나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차를 마셨



어르신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실버 코너는 큰 글씨로 표기합니다.

다는 최초의 기록은 삼국유사에도 나오며, 허준의 동의보감에도 무궁화차를 달여먹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꽃은 모든 영양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풍부한 맛과 영양분을 갖추고 있어요. 일반적인 꽃은 두고 보다 시들면 그 역할이 끝나지만, 꽃차는 잔 속에서 다시 꽃을 피우죠. 따뜻한 물을 만나 다시 피어나는 꽃은 그 자체만으로도 힐링이에요.” 꽃차의 재료는 정원에서 자라는 식용꽃도 일부 사용되지만, 주로 전라도 지역에서 키운 식용꽃을 직접 정성껏 더워서 사용하고 있다. 꽃차를 주문하면 다기세트와 꽃캔디가 나간다. 그의 정성이 색색의 꽃을 만나 트레이 위를 아름답게 수놓는다. 카페 옆 공방에서는 꽃차와 꽃꽂이 수강이 이뤄지며, 일주일에 한 번 외부강의도 나가는 등 그는 꽃차문화 전파를 위해 바쁜 일정들을 소화해내고 있다. “제가 손수 꾸미고 가꾼 공간에서 잘하는 일을 해나가고 있다는 성취감이 삶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어주고 있어요. 가진 게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가진 능력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든지 함께 나눌 준비가 되어 있어요.” ‘눈으로 꽃을 즐기고, 코로 향을 즐기며, 혀끝을 통해 향이 온몸으로 퍼지는 편안함을 즐긴다.’ 카페 유리문에 쓰인 문구처럼 많은 사람들이 꽃차를 통해 치유와 힐링의 감성을 느낄 수 있기를 그는 바라고 있다.



천천히 내려 음미하는 꽃차의 매력

골든타임을 잡아라! 전화금융사기 대처법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주로 노인들이 당하기 쉬운 것으로 치부되었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하지만 이제는 나날이 그 수법이 교묘해짐에 따라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범죄로 인식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시간은 약 '30분'. 골든타임 잡는 전화금융사기 대처법을 알아보자.

글. 편집부 자료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금융감독원



예방TIP

1. 금융거래 정보 요구에는 절대로 응하지 말 것

전화로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을 이유로 계좌 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를 묻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로 응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텔레뱅킹의 경우 인터넷뱅킹과는 달리 공인인증서 재발급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타인이 취득 시 사기 피해에 취약하다.

2.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면 100% 전화금융사기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세금, 보험료 등을 환급해 준다고 하거나, 계좌 안전조치를 취해주겠다고 하면서 현금지급기로 가도록 유도하는 경우엔 절대로 응해선 안 된다.

3. 자녀 납치 전화금융사기에 미리 대비할 것

미리 자녀의 친구, 선생님, 인척 등의 연락처를 확보해둘 수 있도록 한다.

4. 개인·금융거래 정보를 미리 알고 있는 경우, 내용의 진위 확인 필요

최근 개인·금융거래 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 메신저는 내용의 진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5. 피해를 당한 경우 신속히 피해 신고 및 지급 정지 요청

전화금융사기를 당한 경우 경찰청 112콜센터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신속히 피해를 신고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도록 하자.




피해 예방의 골든타임, 30분

금융감독원이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62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4명 중 3명은 사기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30분 이상 몰랐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해자의 25.9%인 161명만이 30분 이내에 전화금융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아챘다고 한다.

한편, 은행 전산 시스템상 계좌에 100만 원 이상의 금액이 입금되면 자동화기기(ATM) 등을 통해 해당 계좌 현금 인출이 30분 동안 지연된다. 이 골든타임 내에 피해를 알아채야 은행이나 금융감독원에 알려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골든타임을 지나 최소 30분~최장 24시간 만에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인지했으며, 하루가 지난 뒤에야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피해자도 상당수였다. 연령에 따라 피해를 알아차리는 데 걸린 시간도 달랐다. 50·60대 이상은 30분 이내에 피해를 인지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19.7%에 불과했다. 다른 연령대는 30%를 넘었다. 전화금융사기 수단은 문자를 통한 접근이 45.9%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은 전화(35.2%), SNS 메신저(19.7%) 등이었다. 사기 수법은 가족과 지인을 사칭한 사기가 36.1%, 금융회사를 사칭한 저금리대출 빙자 사기가 29.8%, 검찰 등을 사칭한 범죄연루 빙자 사기가 20.5%였다.

‘일단 의심하라’, 전화금융사기 예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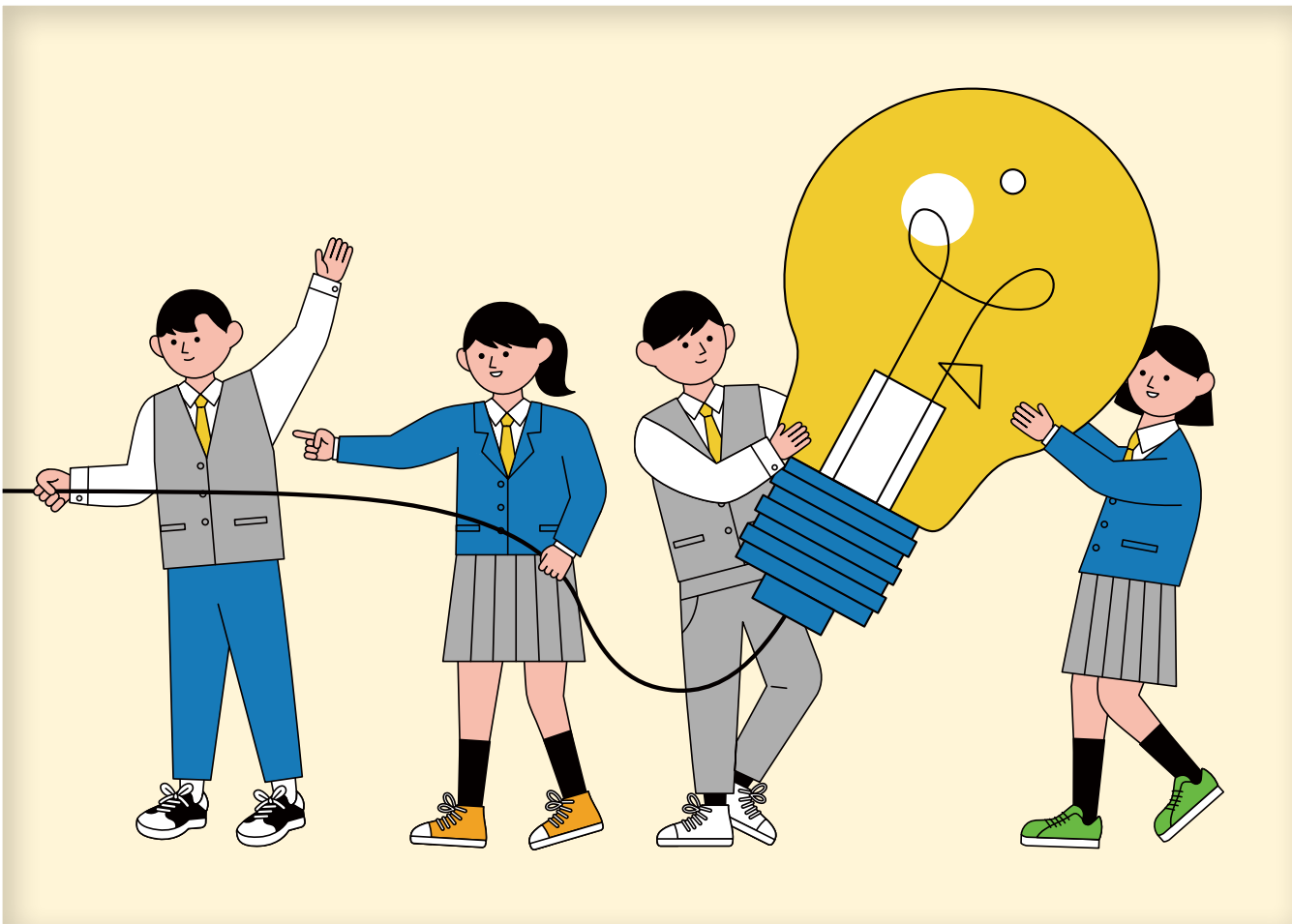
전화금융사기 범죄자들은 해외에 콜센터를 설치하고 국제 조직으로 움직이며 복잡한 발신 경로로 사기 대상자에게 접근한다. 불법적으로 수집한 개인 정보를 활용할 뿐만 아니라 송금 과정에서도 이른바 ‘대포 통장’을 이용한다.

따라서 전화금융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경찰과 금융·통신 기관의 협조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범죄 방지 협력도 요구된다. 특히, 전화금융사기의 대상이 되는 시민들 스스로가 전화금융사기 여부를 빨리 파악하고, 피해를 입지 않는 방법을 충분히 숙지해두어야 한다. 

청소년이 직접 바뀌나가는 고양시
2021 청소년 제안창작소

16세 스웨덴 환경운동가인 그레타 툰베리를 롤모델로 삼아 한데 모인 청소년들이 있다. 이들은 고양시 환경, 문화, 여성, 장애인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고민하며 새로운 정책들을 제안하게 된다. 고양시가 청소년 제안발굴제도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창의모임, '청소년 제안창작소' 이야기다.

글. 박다연(편집부) 사진. 이현재



(좌측부터) '내 손으로 만들고양'팀 김율하·박하은·이소현·김민서 학생

청소년에게 시정참여의 창구 제공

청소년 제안발굴제도는 청소년들의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시정에 반영하는 동시에 청소년들에게 시정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소통행정 실현을 위해 기획된 제도다. 시는 이 제도의 실행을 위해 지난 2019년 4월부터 6월초까지 약 2달간 관내 36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제안창작소 구성원들을 모집했다. 3회째인 올해 멤버는 14~19세 청소년 22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8개 팀으로 나뉘어 활동한다.

고양시(기획정책관)와 고양시청소년재단(토당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동시에, 청소년들에게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관심을 갖고 주체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 같은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세상을 바꾸는 청소년들의 작은 아이디어

선발된 청소년들은 매년 3개월간 팀별로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3차례의 제안 교육 워크숍·현장조사 활동·컨설팅 등을 통해 아이디어를 다듬고 완성한다. 이 중 우수 제안들은 검토와 심사를 거쳐 고양시 정책으로 반영된다. 제안창작소 교육은 전문가를 초청해 수요자 관점의 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 수요자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토론, 문제분석 등 실습활동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실제로 2019년 제안창작소에서 제안된 '청소년 전용 먹거리 쉼터'는 현재 고양시 정책에 반영돼 추진 중이다. 또 2020년 중앙우수제안 평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기도 했다.

'제안창작소' 활동은 여름방학 기간인 7~8월에 집중 실시되며, 2~5명으로 구성된 각 팀이 제안주제를 정해 6주간 제안을 완성해간다.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어나가는 고양시

올해 선발된 8팀 중 신일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내 손으로 만들고양'팀 4명의 학생들은 "실시간으로 페이스북 추첨을 통해 선발되었을 당시 소리를 지를 정도로 기뻐다"며 당시의 소감을 전했다. 중학교에 입학해 다양한 친구들을 사귀어야 할 때였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교류가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제안창작소 모임을 알게 되었고 함께 참여해 스스로 프로젝트를 진행·완성해나가고자 한 것이 지금의 팀을 구성한 계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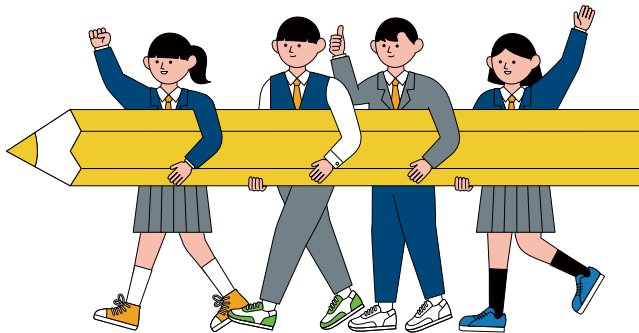
"제안창작소 활동을 통해 학교에서는 알 수 없었던 것들을 알아가고 있어요. 특히, 작년과 재작년에 선발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참고하여 저희만의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무척 재미있어요." 팀리더 김율하 학생은 제안창작소에서 제안한 아이디어가 채택되어 고양시민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대면 모임을 할 수 없어 어려움이 많지만, 각자 더 나은 방법을 탐색하고 생각도 해보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단체채팅방에 알려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 각자 불편한 점들이 있으면 보완할 방법을 생각해보고 서로 부족한 점들도 보충해줘요."

나름의 방법을 찾아 제안 발굴에 박차를 가고 있는 이들은 제한적인 상황도 서로 의지해 극복해나가며 학교에서는 알 수 없었던 경험과 지식들을 쌓아나가고 있다. 이는 제안창작소의 탄생배경이자 존재이유이기도 하다.

"제안창작소 프로그램을 통해 저희가 제안한 아이디어가 채택되어 '청소년들이 안전한 고양시'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를 비롯하여 유행성 호흡기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마스크 쓰기 실천에 큰 보탬이 되어 고양시민들이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내 손으로 만들고양'팀이 과연 어떠한 아이디어를 통해 제안을 완성해나갈지 기대해 봐도 좋을 듯하다. 🍌



고양시 청소년들의 든든한 길잡이가 되고 싶어요! 맞춤형온라인학습멘토링 프로그램

재단법인 고양시청소년재단 산하기관인 고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로 취약해진 청소년들의 시간관리와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맞춤형온라인학습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고양시 청소년들이 이 위기를 함께 슬기롭게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학습 길잡이로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고 있는 대학생 멘토들을 만나보았다.

글, 사진, 강지현(고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사)



(좌측부터) 황상하 센터장, 조선우·김주현·최예린·이윤상 멘토, 강지현 담당자

Q. 맞춤형 온라인학습멘토링 활동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이윤상 멘토 고양시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멘토의 경험과 학습전략을 토대로 공부 방법을 알려주고 학습의욕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MLST-2 학습전략검사로 자신의 학습태도와 심리와의 관계를 알아보고 장점은 복돋아주고 단점은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며 러닝메이트가 되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김주현 멘토 온라인학습멘토링은 한 주 동안 잘 지냈는지 안부를 물어볼 수 있는 친구가 되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시간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과 함께 계획한 학습목표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점검해줘요.

Q. 멘토링 활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이윤상 멘토 수능 끝나고 음대실기 입시를 치르면서 많이 지치고 소진되었어요. 뭔가 의미 있는 활동을 통해 재충전하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비대면 활동이라는 점도 매력적으로 다가왔고요.

김주현 멘토 대학생이 되면 교육봉사를 꼭 하고 싶다는 생각을 예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봉사기회를 잡하기 어렵다가 대외활동 앱에서 '고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멘토 모집 공고를 보고 망설임 없이 바로 신청했습니다.

조선우 멘토 학창 시절에 학원을 많이 다니지 않아 혼자 공부하다 보니 한계를 많이 느꼈어요. 대학생이 되고 나서 저와 같이 어려움을 겪었던 친구들이 있다면 꼭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 프로그램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최예린 멘토 청소년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이 교육 공백이 커졌다는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 뭔가 이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Q. 학습 의욕은 높지만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는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다가갔나요?

김주현 멘토 제 경험을 많이 공유해 주었어요. 제가 사용하던 플래너 사진이나 암기방법으로 연습한 것을 사진으로 찍고 ppt에 넣어서 설명해주면 멘티가 화면을 사진으로 찍고 필기도 하면서 많이 좋아해 주더라고요.

이윤상 멘토 청소년들을 격려하면서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인형을 앞에 두고 설명을 하는 팁, 빈칸 뚫어 채워 넣기, 학원의 도움을 받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공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최예린 멘토 저는 멘티가 자신만의 케이크를 만드는 것이 꿈이라고 해서 제과제빵학과에 다니는 친구에게 직접 빵 만드는 실습영상을 촬영해 달라고 부탁해 멘티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랬더니 멘티가 제과제빵학과에 꼭 진학하고 싶다는 목표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와 정보를 제시하는 것이 동기 부여에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Q. 멘토링을 진행하시면서 가장 인상 깊거나 보람 있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최예린 멘토 사전검사에서 아무런 학습의욕도 없고 동기부여도 안되어 있던 멘티가 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을 열고 변해가는 게 매 회기 때마다 느껴져서 놀라웠고, 매시간이 감동적이었어요.

조선우 멘토 정서지원 프로그램으로 '멘토와 멘티 역할 바꾸기 프로그램(바뀌볼고양)'을 진행할 때 소극적이었던 멘티의 모습이 평소와 다르게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변해서 인상 깊었습니다.

Q. 앞으로 멘토링 활동 계획이 궁금합니다.

최예린 멘토 멘토링이 끝나더라도 계속해서 친한 언니나 누나로서 멘티를 지지하고 응원해주겠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게 멘토링에 참여했던 목표이기도 하고요.

조선우 멘토 멘토링이 후반부에 접어들어서 그동안 프로그램 진행하느라 보여주지 못했던 인간적인 면모를 많이 보여주고 싶습니다. '누구나 잘하는 분야는 다르고 자신만의 존재 이유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려 줄 계획입니다. 



맞춤형온라인학습멘토링 활동

2021년 맞춤형온라인학습멘토링 신청
운영기간 3월~12월
이용대상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이용방법 고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홈페이지(www.gcyf.or.kr/sb/)
신청기간 하반기 신청 8월 10일~31일까지

세계는 지금 ESG 혁신 중! 기업의 ESG경영

과거 기업의 경영방식은 재무적 성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기업이 양질의 성장을 거듭함에 따라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내외부적 요구가 강해지며 'ESG'가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사회적 책임과 이윤 추구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을 목표로 하는 ESG는 이제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닌, 기업의 장기적 유지·성장을 위한 필연적 선택이 됐다.

글: 편집부 자료출처: 트렌드인사이트



기업의 장기적 성장을 위한 필수 덕목, ESG

‘ESG’란 Environmental(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조)의 앞글자를 딴 약자로,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을 의미한다. 좋은 일을 해야 한다는 당위가 아니라 ESG를 추구함으로써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개선한다는 실증론적 기준으로 2005년 처음 등장했다. 2018년부터는 ESG 활동을 하는 기업에만 투자하는 ‘ESG 투자’가 전체 운용자산의 20~40%를 차지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으며, 최근에는 ‘그린’과 ‘환경’이라는 단어로 대표되는 공생의 가치를 중시하고 지구를 위한 좋은 제품을 골라 쓰려는 고객이 늘고 있다. 더 좋은 근로환경(Work Environment)을 제공하고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과 일하려는 구성원과 파트너도 늘고 있다. 이처럼 비즈니스를 둘러싼 이들의 의식이 전반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이제 우수 인재나 알찬 사업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사회문제에 관심을 두고 이를 앞장서 해결하는 보람을 줄 수 있어야 한다. ESG는 고객, 구성원, 파트너 등 기업의 모든 이해관계자의 요청을 반영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장기적 성장 가능성을 가진 기업들은 대부분 ESG에 적극적이다. 예전에는 ESG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형국이었다면, 이제는 기업이 신경 써야 할 장기적인 전략 혹은 투자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국내외 주요 기업들의 ESG경영 사례

1. 탄소배출 ‘0’에 도전하는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는 10억 달러의 ‘기후 혁신 펀드’(Climate Innovation Fund)를 조성해 향후 4년간 탄소 제거 기술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며, 최근에는 ‘탄소 네거티브(Carbon Negative)’를 도입, 2030년부터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배출량보다 더 늘린 후, 2050년까지 창사 이래 배출한 모든 이산화탄소를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2. 옷을 물려 입을 것을 권장하는 의류 브랜드 ‘파타고니아’

미국의 아웃도어 전문 의류 브랜드 파타고니아는 다양한 환경 캠페인에 앞장서는 것은 물론, 실제로 자신들의 제품을 새로 사서 입기보다 중고 거래를 독려하고, 고객들에게 반진고리를 무료 배포하며 의류 수선 방법을 영상으로 공유하는 등 따뜻한 아이디어들을 끊임없이 실천하고 있다. 또한, 생산협력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에 ‘Social’과 ‘Environmental’ 기준을 더해, 협력업체 선정 시 직접 현장에 가서 실사를 하고 선정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3. 클린뷰티 선도하는 ‘올리브영’

올리브영은 클린뷰티 캠페인과 생분해(완전분해) 플라스틱 저감 친환경 모델로 주목받았다. 이 회사는 2020년 6월부터 클린뷰티 기준을 정하고 이에 맞는 브랜드와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유해 의심 성분을 배제하고 친환경이나 동물보호 브랜드에 마크(엠블럼)를 부여해 국내 클린뷰티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화장품 즉시 배송 서비스인 ‘오늘드림’의 포장재도 재활용 가능한 크라프트지로 교체했다.

4. 모두와 아름다움을 공유하기 위한 노력, ‘로레알’

로레알은 상품 디자인, 유통, 생산과정, 원재료 조달 등 가치사슬의 전 단계에서 지속가능성 달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신규 출시, 또는 리뉴얼된 모든 제품이 환경 및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했으며, 제품의 생산 및 운송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폐기물을 감축했다. 또한,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공급업체 관리, 직원복지 향상 등 지역사회·공급업체·직원의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



이달의 문화행사

※ 상기 공연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해 축소·연기·취소될 수 있습니다

고양아람누리



2021 디지털-씨어터 스테이지 3

미디어 파사드 <내 마음 속 어린왕자>

일시 8. 7.(토) 오전 11시, 오후 2시, 8. 8.(일) 오후 2시

장소 고양아람누리 새라새극장

입장료 전석 1만 원

전 세계인의 가슴에 살아 숨 쉬는 프랑스 작가 생텍쥐페리의 명작동화 <어린왕자>가 첨단 영상기법이 결합된 작품으로 재탄생된다. 프로젝션 맵핑을 활용한 미디어파사드는 작품 내 우주공간을 탁월하게 표현하여 관객의 몰입도를 높여주고, 플로팅 홀로그램 기술과 크로마키 기법으로 영상과 무대언어가 자연스럽게 결합되어 관객들의 마음 속 어린왕자를 다시 만나게 해줄 것이다.



2021 아람누리 마티네콘서트 3

<Summer Festa>

일시 8. 26.(목) 오전 11시

장소 고양아람누리 아람음악당

입장료 전석 2만5천 원

아람누리 평일 오전 시간대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한 마티네콘서트. 내로라하는 작곡가들의 주옥같은 명곡들을 선보일 2021 교향곡 Festa 시리즈 중 세 번째 <Summer Festa>에서 연주자들이 음표 하나하나에 쏟아내는 정성이 관객들의 마음이 전해질 예정이다.

*출연진: 코리아콥오케스트라, 지휘-이승원, 협연-박지윤, 줄리앙 줄만

*프로그램: 모차르트 극장지배인 서곡, 바흐 바이올린 이중 협주곡 BWV 1043, 비제 카르멘

모음곡 1번, 사라사테 지고이네르바이젠,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5번 4악장

※ 위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의해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1 한문연 방방곡곡 문화공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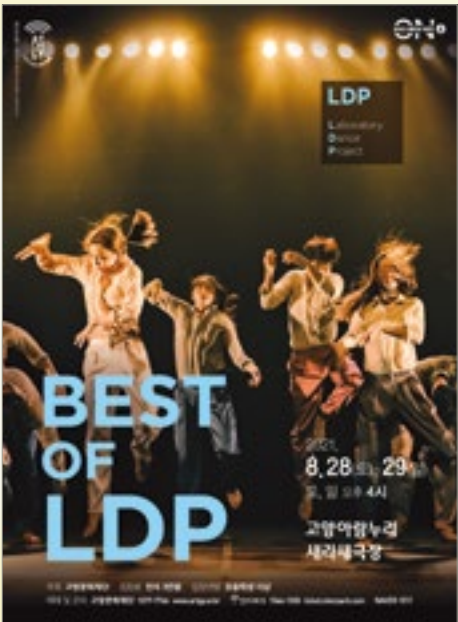
부전자전 모차르트-SUMMER CLASSIC

일시 8. 20.(금) 오후 7시 30분

장소 고양아람누리 아람음악당

입장료 전석 2만 원

전 시대를 통틀어 최고의 고전음악 작곡가로 불리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와 그에 버금가는 위대한 음악가이자 모차르트의 아버지인 레오폴트 모차르트가 남긴 클래식 음악의 위대한 유산을 찾아가는 여정이 될 클래식 콘서트이다. 모차르트의 생애를 중심으로 아버지 레오폴트 모차르트와의 다양한 에피소드와 친절한 해설이 함께하여 더욱 교육적이고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다.



2021 새라새ON시리즈 4

LDP <BEST OF LDP>

일시 8. 28.(토) 오후 4시, 8. 29.(일) 오후 4시

장소 고양아람누리 새라새극장

입장료 전석 3만 원

20년 넘게 한국 현대무용계의 중심으로 활동해온 LDP의 대표작을 보여줄 이번 무대는 <몸부림>(김동규 안무)와 <노코멘트>(신창호 안무)로 구성되어 있다. <몸부림>은 2019년 신작 <트리폴빌>에서 첫 선을 보인 작품으로 내면의 에너지가 자유롭게 발휘되는, 역동적인 군무가 인상적인 작품이다. 이어지는 <노코멘트>는 설명이 필요 없는 LDP의 대표작으로 2002년 초연 이후 현재까지 그 강렬함을 잊지 못하는 많은 관객들의 요청으로 꾸준히 재공연되고 있다. 🎭

친구야 공연장 가자

고양ART페이 공연안내

- 안내된 공연 외에 다른 공연은 ‘고양ART페이’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동반자 1인에 한하여 30% 할인된 금액으로 추가 구매가 가능합니다.
- 고양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필히 개별예매 진행(기간: 6. 28.~7. 31.)
- 기간 내 예매 미진행 시 ‘고양ART페이’ 소멸

고양ART페이란?

청소년들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해 고양문화재단에서 발행하는 공연예매권입니다.

내용

공연 명	일시	장소
디지털-씨어터 스테이지 미디어 파사드 내 마음 속 어린왕자	8. 7.(토) 오전 11시·오후 2시 8. 8.(일) 오후 2시	고양아람누리 새라새극장
프라임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부전자전 모차르트	8. 20.(금) 오후 7시 30분	고양아람누리 아람음악당
국악콘서트 : 모던민요 송소희 & 두번째달 & 김대일	9. 3.(금) 오후 7시 30분 9. 4.(토) 오후 5시	고양어울림누리 별모래극장
학교 밖 예술세상 틴누리 탈춤극 : NO FACE 노페이스	9. 29.(수) 오후 8시 9. 30.(목) 오후 8시 10. 1.(금) 오후 8시 10. 2.(토) 오후 4시·8시	고양아람누리 야외공연장
상주단체 ‘공연배달 서비스간다’ 무용극 : 돛땀	10. 29.(금) 오후 8시 10. 30.(토) 오후 4시 10. 31.(일) 오후 4시	고양아람누리 새라새극장
연극 : 레미제라블	11. 5.(금) 오후 7시 30분 11. 6.(토) 오후 2시·6시	고양아람누리 아람극장

* 이후 공연일정은 '고양문화재단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공연 및 예매문의

고양문화재단 홈페이지
'1:1문의' 또는 1577-7766
사업문의 고양시 평생교육과(031-8075-2284)



#1

고양시 주거복지센터 안내

상담대상

- 월세체납, 경매, 화재, 침수 등으로 퇴소해야 하는 주거위기가구
- 쪽방, 고시원, 찜질방,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비주택거주가구
-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이전을 원하는 시민
- 주거급여, 청년주거급여 등 주거비지원이 필요한 시민
- 전·월세보증금 대출 문제로 고민하는 시민
- 집수리 지원 등 주거환경개선을 원하는 시민
- 임대인, 임차인과 갈등을 겪고 있는 시민

주요업무 주거복지 상담 및 사례관리, 주거복지 교육 및 전문가 양성, 주거복지 지원 네트워크 구축, 시 각종 주거복지사업 안내 및 주거복지 정책 컨트롤타워, 주거복지 정책 연구 및 개발

주소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 110, 배다리사랑나눔터 4층

문의 고양시 주거복지센터(031-8075-3840)

#2

급식서비스 자원봉사자 모집 안내

모집기간 2021. 8. 31.(화) 까지(상시모집)

모집대상 정기적인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내용

구분	활동 시간	모집인원	공통사항
무료급식 서비스	월~금 9:00~11:00(주 5회)	상시 모집	무료급식 조리 보조 (전처리) 및 배식 활동
도시락배달 서비스	월~금 11:00~12:00(주 5회)		도시락 포장 및 배달 활동

장소 고양시문촌7종합사회복지관 1층 경로식당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340)

문의 정다운 사회복지사(070-8693-2263)

#3

일산서부경찰서 PM(개인형이동장치) 100일 단속 중

PM(개인형이동장치)이란?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 등 1인용 이동장치

추진배경 PM 공유 서비스 활성화로 교통사고 증가

추진기간 '21. 5. 14.~8. 31.(100일간)

주요단속대상

- 음주운전·무면허운전·안전모 미착용·2인 탑승·신호위반
- 인도주행·중앙선침범·13세 미만 어린이 탑승·보행자보호의무위반 등

'21.5.13. 시행 PM 관련 도로교통법 주요 내용

구분		요금
법적지위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규격 충족 시)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방법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보도’ 통행 불가)
운전면허 필수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 10만 원 ※ 면허 취득 제한(결격) 병행
13세 미만 어린이 탑승 시		보호자 과태료 10만 원
운전자 주의 의무	동승자 탑승금지	범칙금 4만 원
	안전모 착용 (자전거용 안전모)	운전자 범칙금 2만 원 동승자 미착용 시 과태료 2만 원
	야간 등화장치 작동	범칙금 1만 원
	과로·약물 등 운전	범칙금 10만 원
주요 처벌 조항	음주운전(단순음주)	범칙금 10만 원 ※ 면허 정지 취소처분 병행
	음주운전(축정불응)	범칙금 13만 원 ※ 면허 정지 취소처분 병행
	신호 위반/중앙선 침범/보도 주행/보행자 보호위반	범칙금 3만 원
	지정차로 위반 (상위차로 통행)	범칙금 1만 원

#4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및 참여자 모집

국민취업지원제도란?

‘한국형 실업부조’로서,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정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모든 취업취약계층에게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직업훈련·일경험·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의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소득지원: 15~69세 구직자 등 취업경험이 있고,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재산 합계액 3억 원 이하) 등에게 구직활동기간 중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6개월) 지급

※ 청년(18~34세)의 경우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가구 재산 상한 요건이 4억 원 이하까지 지원

지원요건 및 지원규모

필요요건		소득	재산	취업경험	지원규모
I 유형 유 형	요건 심사형	중위소득 50% 이하	3억 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또는 800 시간) 이상	25만 명
	선발형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특례: 120%)	3억 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또는 800 시간) 미만	20만 명
II 유형 (기존 취성패)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소득 제한 없음)	무관	무관	19만 명

I 유형: 취업지원서비스+구직촉진수당(최대 300만 원)
II 유형: 취업지원서비스+취업활동비용(최대 195.4만 원)

참여신청 기간 상시

접수방법 고양고용센터(방문접수) 또는
홈페이지(www.work.go.kr/kua)

문의 고양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031-920-3937)

#5

성인문해교육프로그램 ‘청춘노트학교’ 참여자 모집

모집기간 수시모집
모집부문 및 대상 60세 이상 누구나
내용
-기초반 화·수·금 10:00~12:00
-기초반(아간) 화·수·목 16:00~18:00
-심화반(예비중학) 월·수·금 10:00~12:00
진행기간 2021. 9.~12.
진행장소 고양시헌들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실
참가비 무료
문의 031-905-3400(이신애 사회복지사)

#6

2021 시민기록물 공모전 안내

공모기간 8. 31.(화) 까지
참가자격 전 국민 누구나
공모내용 고양시의 추억이 담긴 문헌, 사진, 영상, 생활용품 등
민간 기록물 기증 및 대여
접수방법
-방문 및 우편: (1046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본관
1층 행정지원과 정보공개팀(업무시간 9:00~18:00)
-이메일: nask@korea.kr
발표 2021년 9월 중
※ 선정작에 한해 감사장 또는 상장 수여
10월 중 고양시 공공 갤러리에 전시 예정
문의 고양시 행정지원과 정보공개팀
(031-8075-2191, 031-8075-2188)

#7

2021년 상반기 교통비 신청 안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기간 2021. 7. 1.(목)~8. 16.(월)
신청자격 주민등록상 거주자가 경기도인 만 13~23세 청소년 중 경기
버스 이용 실적이 있는 자
신청방법 PC 및 모바일웹(www.gbusp.b.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지원내용 연간 12만 원(반기별 6만 원)한도 내에서 경기버스
실사용액의 100% 지원
문의 경기도 청소년교통비지원사업 콜센터(1577-8459)

#8

성폭력 주요 법률 개정사항 안내
(‘20~’21년 주요 법률 개정사항)

성폭력처벌법(’20. 5. 19. 시행)
카메라 등이용촬영(5년↓3천만 원↓→ 7년↓5천만 원↓), 성적목적다중
이용장소침입(1년↓300만 원↓→1년↓1천만 원↓, 특수강도강간·특수
강간(5년↑→7년↑) 등, 불법 촬영물 등 소지·구입·저장·시청행위 처벌
(3년↓3천만 원↓), 성적영상물 이용 협박(1년↑)·강요(3년↑)행위 처벌,
특수강도강간 등 예비·음모죄 신설(3년↓)
청소년성보호법(’20. 6. 2. 시행)
아동·청소년 강간·강제추행 행위에 대한 예비·음모죄 신설(3년↓), ‘아동·청
소년이용 음란물’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용어 변경 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전사·광고·소개(3년↑) 및 소지·구입·시청(1년↑) 등 처벌
형법(’20. 5. 19. 시행)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 상한(13세→16세 미만), 강간·강간상해, 미
성년자 간음 등 행위 예비·음모죄 신설(3년↓)
청소년성보호법(’21. 9. 24. 시행예정)
16세 미만 아동 대상 성적 대화 및 유인·권유행위 처벌(3년↓3천만 원
↓), 16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 대상일 경우 ‘성적 착취 목적’이 입증
된 경우에만 처벌

#9

고양관광정보센터로 떠나는 고양옥탑방 영화여행

대상 고양시민 ※ 선착순 20명
일시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오후 8시부터
장소 고양관광정보센터 옥탑방
관람료 무료
일정 및 상영작

일정	상영작	비고
8. 28.(토)	모아나	전체 관람가
9. 25.(토)	주토피아	전체 관람가
10. 23.(토)	안시성	12세 관람가
11. 27.(토)	그린북	12세 관람가
12. 25.(토)	라라랜드	12세 관람가

예약 고양관광정보센터 인스타그램(goyang.tic)
문의 고양관광정보센터(031-8075-3003)
※ 기상 및 일몰 상황에 따라 일정과 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10

폐건전지·종이팩 교환사업 안내

폐건전지와 종이팩 왜 모아야 할까?
-그냥 버려질 경우 환경에 유해한 폐건전지
-수입에 의존하는 고급 천연펄프로 만든 종이팩
-재활용을 위해 회수부터 철저히!
폐건전지 종이팩 교환기준
-폐건전지 20개→새 건전지 2개
-종이팩 1kg→물화장지 1개
폐건전지 종이팩 교환 방법
-인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교환(재고 소진 시 교환 불가)
문의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

#11

아이돌봄서비스 감사 이벤트

기간 2021. 9. 까지
대상 기본형+종합형 돌봄서비스 각각 1회 이용 아동(4개월~13세)

구분	내용	요금
기본형 서비스	등하원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등	(가형) 1,506원~ (라형) 10,040원
종합형 서비스	(아동관련) 세탁, 청소, 음식 1회	(가형) 4,516원~ (라형) 13,050원

감사선물 ① 카카오투명+거꾸로우산 ② 카카오통보냉면블러
③ LCD전자보드
※ 감사선물은 아동당 1, 2, 3 중 선택(컬러 랜덤증정)할 수 있으며 이벤트 기간
종료 후 일괄 배송
문의 고양시 아이돌봄지원사업팀(031-969-4064, 4028)

#12

8월 상담프로그램 일정 안내(고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

대상 고양시 내 주소를 둔 영유아·부모·보육교사·어린이집
장소
-고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 3층 상담실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325 고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
-탄현위브더제니스아이라브맘카페
(고양시 일산서구 일현로 97-11, 상가동 1층)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zoom)
신청방법 고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상담 신청→
8월 상담프로그램 신청
상담종류 영유아미술심리상담, 부모심리상담, 무료법률상담
문의 고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031-975-3314)

시정·유관기관 정보

도서관 정보

의정소식 / 건강상식

도서발굴단 추천도서

지난달, 사서는 무슨 책을 읽었을까요?
#ହି꺼친구마라탕 #천사소녀답정너 #아무진세미집순이 #무채색레드벨벳이 추천합니다.

글. 고양시도서관센터

#1

겨울이 지나간 세계



아사다 지로 | 부키

주인공은 정년퇴직 후 뇌출혈로 쓰러진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던 주인공은 마담 네즈라는 여인을 만나면서 기묘한 상황에 처하는데, 그 과정에서 숨기고 싶었던 과거와 마주한다. 삶의 마지막 막을 맞이할 거라 생각하는 주인공에게 마담 네즈는 “당신은 참 열심히 살았어요”라고 말해준다. 인생의 마지막에 누구보다 잘 살았다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지금을 후회 없이 살아가야겠다고 생각해 본다. #ହି꺼친구마라탕

책 속 한 줄

“당신은 참 열심히 살았어요” 그 한마디에 내 마음이 흔들렸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의 말하기에 순순히 받아들이 수 있었다.

#2

여름의 빌라



백수린 | 문학동네

백수린 작가의 책은 스쳐 지나가는 줄 알았던 인연이 반복되어 깊은 관계가 되고, 가까워졌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또다시 멀어지고, 상대를 이해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다시 한 번 알려준다. “주아 너에게는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 자유가 있다”라는 말처럼 이번 여름,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나를 인정하며 우리에게 평범하지 않은 반짝이는 여름이 되기를 바란다.

#천사소녀답정너

책 속 한 줄

“예상치 못했던 일이 주는 즐거움. 계획이 어그러진 순간에만 찾아오는 특별한 기쁨. 다 잃은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어느새 한여름의 유성처럼 떨어져 내리던 행복의 찰나들.”

#3

프리워커스



모빌스 그룹 | 랜덤하우스코리아

이 책은 모든 과정을 일상적으로 써 내린 듯한데도 비범하고 파격적으로 다가온다. 그중 제일은 판매상품 기획보다 브랜드를 먼저 만들어냈다는 것. 내 일의 주인이 되어 주체적으로 일한다면 ‘프리워커’라니! 이러한 관점과 정체성을 가지고 일하며, 이것을 공유하고 함께 추구하자고 외치기 때문에 열광하는구나 싶었다. 요즘 사람들의 ‘일’을 제대로 느끼고 싶다면 이 책을 1순위로 두어도 좋다. #아무진세미집순이

책 속 한 줄

“세상의 기준과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에게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욕망에 충실할 때 비로소 자유를 얻는다. 우리는 주체적으로 일할 때 만족을 느꼈고, 성장했다.”

#4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



임국영 | 자음과모음

그 옛날의 만화 ‘구러기수비대’ 노래로 시작되는 도입부, 귀여운 표지와 귀여운 소개에 그렇지 않은 내용이나 결말이 우리를 반기지만, 과거를 좇다 보면 누구나 모든 상황에 완벽한 결말을 떠올릴 수는 없다는 점이 또 공감이 간다. 나의 과거로 돌아가서 그 시절을 생각나게 하는 이 책의 소설 3편을 외롭지만, 또 외롭지 않은 이 시절의 우리에게 추천하고 싶다. #무채색레드벨벳

책 속 한 줄

“어릴 적 수진은 한 만화영화가 완결 날 때마다 말로 다 표현할 길 없이 서글펐다. 결말을 본 순간 수진은 주인공과 그의 친구들이 살아가는 세계에서 홀로 퇴장하거나 추방당하는 기분이었다. 내가 사랑하던 그들은 이제 나랑은 무관한 세계에서 씩씩하게 살아가겠지. 그래서 수진은 울었다.”

의정소식



고양시의회 공식 SNS 채널 개설, 주민들에게 다양한 정보 제공

고양시의회(의장 이길용)가 7월 1일부터 시민들과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의회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널을 개설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소식을 발 빠르게 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SNS 채널 개설은 코로나19로 시민과 대면이 어려워진 상황에 시의회의 활동내용을 알리고 시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의회 회기 일정이나 안건 처리 내용 및 시의회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이야기까지 주민들과 한 발 가까이에서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길용 의장은 “SNS로 전하는 의회 소식에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며 “앞으로 정보와 재미를 줄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시민들과의 소통을 활발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양시의회, 부여군의회와 상호 우호협약 맺어

고양시의회(의장 이길용)가 6월 30일 부여군의회를 방문하여 상호 우호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서 양 의회는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의정, 경제, 교육, 문화, 체육, 관광 등 지방의정의 모든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고, 도농상생발전을 위해 긴밀하게 교류하기로 하였다.

이길용 의장은 “이번 우호교류 협약을 계기로 의회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양 도시의 공동이익 추구하고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도농상생은 물론 지방자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앞으로 양 의회는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가 동반성장하는 관계로 발전해나갈 계획이다.

건강상식

모기와 거리두기 실천으로
말라리아 예방하기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말라리아 원충은 얼룩날개모기류에 속하는 암컷 모기에 의해서 전파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얼룩날개모기 암컷이 말라리아 원충을 전파시킨다. 주로 인천, 경기 및 강원 북부지역에서 5월부터 10월 사이에 환자가 많이 발병한다. 오한, 발열, 발한의 전형적인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데 원인 병원체의 종류에 따라 증상 및 특징이 다르다.

출처: 질병관리청

모기의 주 서식지

말라리아 매개 모기는 풀숲이나 웅덩이 근처 등에서 서식하다가 야간에 활발하게 활동하며 사람들을 문다. 모기의 활동 환경에 따라 내 집 근처에서도 쉽게 물릴 수 있다.

모기에 물려 감염되었을 때의 증상

주요 증상은 코로나19와 비슷한 발열, 오한, 두통, 오심 등이며 우리나라에서 주로 유행하는 삼일열말라리아의 경우 하루는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하루는 증상이 없다가 다음날 다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 말라리아는 잠복기(7일~12개월)가 다양하여 증상이 바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다음 해에 발병하기도 한다.

이것만은 주의!

증상 발현 시 몸살감기나 냉방병으로 생각하고 해열진통제를 복용할 경우, 말라리아 진단이 늦어지고 그 사이에 나를 물었던 모기가 주변 사람들도 물어 감염시킬 수 있으니,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검사·치료를 받도록 한다.

검사 및 치료

말라리아는 신속진단검사(RDT)로 15분 만에 간단히 감염 여부를 알 수 있으며 신속하게 치료하면 완치가 가능하다.

모기와 거리두기 4단계

1. 야간활동 자제
- 모기는 야간에 활발하게 활동하므로 해 질 녘에서 새벽까지 야간활동 자제
2. 밝은색 옷 입기
- 모기는 어두운색을 좋아하므로 야외활동 시 밝은색의 옷 착용
3. 기피제와 살충제 사용
- 상처나 얼굴 주변을 피해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기피제 사용
4. 방충망 정비
- 실내로 모기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방충망에 틈이 없는지 반드시 점검



고양시

2021년 2학기부터 고양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2021년 2학기 국가장학금 사전신청 필수!!
※ 국가장학금 미신청시 고양시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원대상

- ▶ 복지대상(기초생활수급, 차상위, 한부모가족) 대학생
- ▶ 장애대학생·다자녀(자녀 셋 이상)가구 모든 대학생(기준중위소득 200%이하)

지원기준

- 1 지급 기준일(공고일)과 지급일 현재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대학생 본인과 가구원 1인 이상이 함께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 2 만29세 이하 대학생(199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3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원 대학에 재학
- 4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균 70점(C학점) 이상 (단,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장애인 대학생 미적용)

지원금액

- ▶ 국민기초 수급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의 100%
- ▶ 그 외 지원대상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의 50%

※ 본인부담 등록금은 국가장학금, 학교·부모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신청접수

접수기간 | **2021. 9. 13. ~ 11. 30.**

접수방법 | 온라인(고양시청 홈페이지 통합예약) 방문·우편(고양시청 평생교육과)

문 의 | 고양시 민원콜센터 ☎ 031-909-9000
고양시 평생교육과 ☎ 031-8075-2272

※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청 홈페이지 참고

최대 100만원



고양시 유튜브 핫 클립(Hot Clip)

글. 고양시 영상홍보팀

#1

고양시민의 다양한 일상 ‘고양브이로그’

<https://youtu.be/58TJDMk2hHE>

평범하지만 특별한 고양시청 소속 스케이터의 일상 브이로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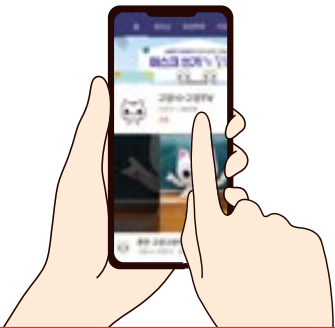
출구 없는 매력에 푹당 빠질 준비 되셨나요?
천사 같아 보이지만 내숭 NO~! 진솔함 100%
선수가 아닌 사람 김아람이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고양시청 7년 차, 노련함이 느껴지는 박윤기 선수와
그리고 임용진 선수, 귀여운 막내 박종현 선수까지
올림픽, 세계선수권 메달리스트의 훈련과 일상을 함께 보실까요?

#자랑스런 #대한민국 #쇼트트랙선수 #김아람

고양시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자막으로, 함께 만나요!

고양시 유튜브는 모든 시민이 체감하는 보편·포용 중심의 무장애 도시를 위해 이주민과 청각장애인이 활용 가능한 배리어 프리 자막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을 제공합니다.

※ 배리어 프리 자막: 음악·소리 정보를 자막을 통해 알려줘요



고양시·고양TV ‘구독&좋아요’ 알림설정

영상으로 만나는 고양시 이야기,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유튜브에서 ‘고양시’, ‘고양TV’를 검색하세요~!

#2

시민에게 듣습니다 ‘민터뷰’

https://youtu.be/wNlp_6LY1Nk

늦지 않았어요! 높빛희망학교에서 함께 공부해요!



고양시 유일의 학력인정 문해교육기관 ‘높빛희망학교’가
올해 4월 첫 입학생을 맞이했습니다!
현재는 초등 1반, 중학 1반이 운영 중인데요.
누구보다 공부에 대한 열정으로 똘똘 뭉친 새내기 어르신들의 모습,
함께 만나 보실까요?

#친구들아 #함께 #공부하자

#3

건강하게 안전하게 ‘걸어보고서’

<https://youtu.be/9tcyg93HOJg>

“걸어보고서 고양 LIVE” 아람누리 도서관 편(Feat. 북큐레이션)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와 바쁜 일상 속, 작은 여유를 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월~금 매일 오후 5시경 생방송으로 추천 산책로 등 고양시 주요 명소를 박순영 영상홍보팀장과 팀원들이 함께 걸으며 현장의 아름답고 멋진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해 드려요.
생방송을 보며 실시간 채팅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것도 ‘걸어보고서 고양’의 묘미! 이번엔 도서관이다! 고양시 대표 도서관 아람누리도서관을 북큐레이션과 함께 소개합니다. 시청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주무관들의 열정을 느껴보세요!

#랜선데이트 #걸어보고서고양 #북큐레이션

이번달 추천 영상

창문이 열리면 일상이 열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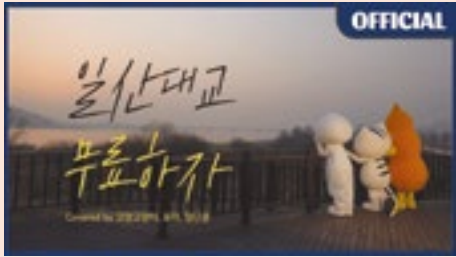
<https://youtu.be/lpctn34xDVw>
2시간마다 10분씩 환기하면 코로나19 감염확률이 10% 미만으로 감소합니다!
#환기 #창문 #진성 #코로나19 #covid19 #안동역

[무야호] 선생님, 고양시 특산물이 뭘니까?



https://youtu.be/Qx_RTIMjh74
바로 일산열무야호~! 아삭한 식감! 시원한 맛! 일산열무야호~!
그만큼 맛이 있다는 거죠~

[Zion.T-양화대교 cover] 일산대교 무료하차



<https://youtu.be/-HBObwA9i14>
고양고양이-ilsan BRDG(일산대교) 고양고양이가 부릅니다.
#무료하차.우리.건너가자.돈내지말고

고양 사랑방

고양시민 및 소식지 독자분들의
소중한 의견에
더 귀 기울이겠습니다!

시민의 소중한 원고를 기다립니다

- 원고종류
수필·공트·체험수기·기행문·독후감·사진·만화 등 제한 없음
- 원고분량
A4 용지 1장 이내(시·만화 등은 적정 분량)
- 원고마감
수시 접수
* 채택되신 분은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보낼 곳
10460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주교동) 고양시 언론홍보담당관실 <고양소식> 담당자
- E-mail
gysosic@korea.kr
- 고양시청 홈페이지
www.goyang.go.kr (늘푸른 고양/시정소식지)
-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yangcity

7	월	호	독	자	후	기
---	---	---	---	---	---	---



오정은(고양시 덕양구)
고양시 김대중 기념관이 생겼다는 것은 알았지만 왜 생겼는지, 어떻게 전시되고 있는지 몰랐었는데, 기념관의 역사적인 의미와 구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신 덕분에 잘 알게 되었습니다.



최혜옥(고양시 일산서구)
요즘 발 골절로 집에만 있었는데, 인공폭포가 새 단장을 마쳤다는 기사를 읽고 말이 다 나오면 빨리 가서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7	월	호	정	책	퀴	즈	당	첨	자
---	---	---	---	---	---	---	---	---	---

김미애, 박성구, 조길임, 조한승

1. 고양시는 올해 7월부터 □□□□□□안전장비 구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안전장비 구입 후 3개월 이내에 일자리정책과로 영수증을 접수하면 10만 원 이내에서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2. 고양의 대표 명소인 일산호수공원 □□□□자연친화 공간으로 새 단장했다. 새로 조성된 인공폭포는 폭 88m, 높이 4.8m~8.5m이고 주 폭포 3개소와 2단 폭포 2개, 계류(시냇물) 2개로 조성됐다.

정답 : 배달종사자, 인공폭포



여름비

글. 김인정(母) 그림. 박준수(子)

촉촉 찹찹
초로록 찹찹
빗방울이 떨어진다
비가 내린다

마음에 엉켜있는
모든 시름
시시콜콜 상념들이
빗소리와 함께
씻겨져간다

낮 동안 달아오른
더위도
내 마음도

촉촉 찹찹
초로록 찹찹

멀어져간다
잊혀져간다

정책
QUIZ

정답을 맞춰보세요!

아래 퀴즈를 풀고 정답을 적어 보내주세요.

<고양소식 8월호> 속에 답이 있습니다.

당첨되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1.

참신한 아이디어로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든든한 조력자
‘□□□□□□□□’. 특히 최근에는 3D 프린터 등을 활용해 시제품 제작부터
영상 촬영까지 원스톱 진행이 가능한 ‘메이커스페이스’를 구축함으로써
청년 창업가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는 중이다.

#2.

□□□□□□는 지역공동체의 회복 및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지역 문제의
발견과 해결 모색의 중심이 되는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가장 근접한
위치에서 주민의 의사를 행정에 반영하는 통로 역할 역시 수행해야 한다.

정답 : □□□□□□□□, □□□□□□

(#1. 힌트: 고양소식 p.4~5 / #2. 힌트: 고양소식 p.8~9)

참여 기간	8월 20일(금)까지	신청	엽서, 이메일(gysosic@korea.kr)
당첨자 발표	고양소식 9월호에 기재		

고양시

주민자치회

전환

주민자치위원회
동장 자문단체

→

주민자치회
주민 대표단체

주민 누구나 주민자치회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관내 기관, 학교, 단체, 사업장 종사자 포함)

기대리엔
아름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 주민자치회란?

우리 동네의 문제와 어려움을 주민 누구나 참여하여 마을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민대표 기구입니다.

○ 주민자치회는 무슨 일을 하나요?

-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 협의·심의권을 가집니다.
- 동 지역개발, 혐오시설 주변 주민 간 의견수렴, 초등학교 통·폐합, 교통신호 개선 등 주민자치업무 수행합니다.
 - 마을계획 수립과 실행, 주민총회 개최, 마을축제 등 각종 행사, 마을신문 발간 등 위임·위탁사무 처리를 직접 수행합니다.
 - 주민자치센터 운영, 작은 도서관 등 공공시설 운영, 저소득 노인 도시락 배달 등

당신을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모십니다.

접수기간 2021. 8. 16.(월) ~ 8. 27.(금)

대 상 | 만 18세 이상 해당 동 주민등록자, 등록외국인, 사업장 종사자 및 학교·기관·단체 임·직원
문 의 |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 담당 / 고양시 민원콜센터 ☎ 031-909-9000